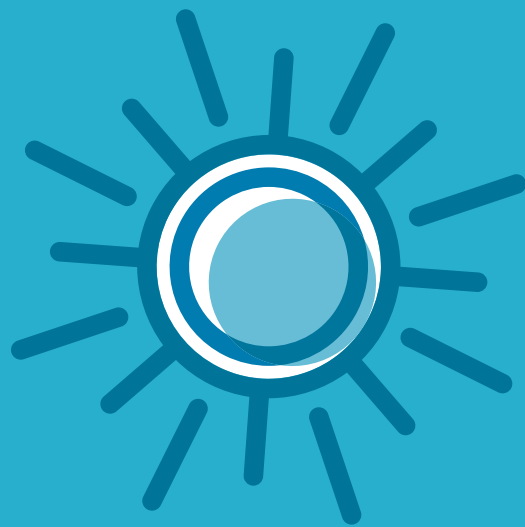


건강가사 을느님들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식지

VOL.183

2021. July | August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여름 바다로, Go, Surf!

핫 플레이스, 고성

백두대간의 기상과 분단의 상흔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청정 해변의 고성.

고요함과 적막함 속에서 끊임없이 파도만 밀려와 부서지던 이 고장에 발길이 잦아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서핑의 성지로 일컬어지던 양양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인근 고성으로 발길을 옮긴 서퍼들이 이곳을 새로운 서핑 스폿으로 만들고 있다. 때 묻지 않은 대자연에 심산계곡과 청정해변이 조화롭게 밀그림을 그려낸 고성은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맑은 공기 속 심도 높은 자연의 색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그 어느 지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액티비티의 정수를 마음껏 누릴 수도 있다. 더욱이 갓 잡아 올린 생선으로 꾸민 식탁은 식도락가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고, 울창한 송림해변으로 소문이 자자한 화진포처럼 마음을 쉬게 할 장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무엇보다 서퍼들이 고성을 사랑하는 이유는 서핑 그 자체에 있다. 힘차고 깨끗하게 부서지는 고성의 파도를 가르는 쾌감은 오직 고성을 경험해 본 서퍼들만이 느낄 수 있는 매력이다. 파도의 경사진 면을 오르내리며 파도를 즐기다 보면 끈적한 여름도, 지긋지긋한 코로나19도 말끔히 잊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 기획

04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19

코로나19 시대의 숨은 영웅

12 창립 인사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21주년

20 특별 인터뷰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홍보대사
'여행스케치'

건강한 오늘

24 닥터 톡톡

방광의 감기 몸살 '방광염'

28 HIRA 빅데이터

구강보건의 날, 함께 알아보는 치과 질환

30 위로의 약방

여름에 좋은 체질별 한방 약재

32 건강 인문학

마음에 걸고 싶은 그림 한 점

34 평가정보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50 열정 36.5℃

심사평가원의 살림을 책임지는
안전경영실



함께하는 내일

54 마음 연구소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가스라이팅

56 미디어 속 건강

우리의 어깨는 강철이 아니다, 회전근개파열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로 보는 어깨 통증

58 #나누는 건강

코로나19 시대의 건강한 피서법은?

60 HIRA NEWS

건보공단과 기관장 교차 특강 외

62 독자마당



당신 덕분에

36 빛나는 그대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
우상현 W병원장

40 고마운 레시피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42 반가운 당신

의료인과 심사평가원이 만나 더 나은 내일을 이야기하다

46 함께의 가치

혼자인 시간, 물입이 곧 힐링 마크라메 공예 체험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식지

VOL.183

2021. July | August

발행일	2021년 7월 6일 통권 제 183호
발행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발행인	김선민
편집인	김한정
기획·디자인·사진	(주)이팝
인쇄	태백종합인쇄공사
고객센터	1644-2000
ISSN	2384-40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 홍보 채널에서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www.hirasabo.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ok_hira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www.youtube.com/okyeshira



웹진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카카오톡 채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정책 이야기 BOOK in BOOK

의약계 안내

02 ① 2020년 진료비통계지표 공개

05 ②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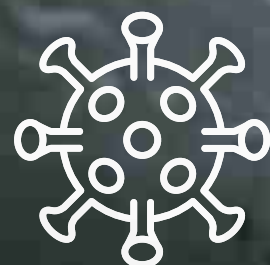
08 ③ 요양기관 주요 청구착오 사례 안내(9항목)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7·8월호와 관련된 모든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숨은 영웅



우리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뚜렷해진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사실상 코로나19 대응태세에 나섰다.
코로나19에 맞서 지낸 시간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다.
올해는 말 그대로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두 번째 여름이다.
치열한 사투의 시간에서, 그래도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달려왔다.
그 최전선에 언제나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던진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글. 이현아 사진. 김홍식, 광진구청, 심사평가원, 편집실

인터뷰. 강남 모건약국 이영은 약사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홍영애 과장

종로 예림이비인후과 강희선 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김홍식 방사선사

광진구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서혁재 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운영실 정보화지원부 박주성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지양 과장(보건복지부 중수본 파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요한 대리(질병관리청 중대본 파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DUR정보부 김성훈 대리





불안 속에도 희망이 있다

2020년 2월 27일, 대구보훈병원의 김홍식 방사선사는 본인이 코로나19 현장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병원이 감염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 확진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때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광화문 예림이비인후과 강희선 원장도 이 무렵 환자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당시 줄어든 환자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같은 해 3월, 정부는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했다. 출입국 전후 자가격리 제도가 이즈음 구체화 됐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전국민의 피부에 와닿았던 순간이다. 마스크는 동이 났고, 국민의 불안감도 커졌다.

“마스크 할당 전까지는 약국에서조차 마스크 찾기가 어려웠어요. 겨우겨우 100~200장 구해 놓아도 순식간에 팔리는 실정이었죠. 구입제한을 두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자유로운 분들이 사재기를 하여 소용이 없었어요. 환자들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방문하기 일쑤고, 계속되는 전화나 방문 문의로 업무가 마비되는 지경이었어요.”

강남 모건약국 이영은 약사

빠른 대응이 필요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이 이미 구축돼 있었던 심사평가원은 바로 이 시점, 대응책 마련에 뛰어들었다.

“2월 28일쯤이었을 거예요. 퇴근하려는데 DUR* 담당 부장님과 팀장님으로부터 마스크 수급 불안으로 사재기, 줄서기 등 혼란이 커 걱정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DUR은 제한사항이 있어 개발이 어려우니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마스크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냐는 질문과 함께요. 3월 2일, 바로 개발에 착수했고, 같은 달 6일, 오픈 목표를 세웠습니다. 3일만에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이 엄청난 압박을 주었지만 책임감을 갖고 시스템 구축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운영실 정보화지원부 박주성 과장

심사평가원은 판매처(약국 등)에서 마스크 입고물량과 재고물량을 관리하는 ‘입고관리’ 화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 개인별 구매수량을 체크하는 ‘판매등록’ 화면, 판매처에서 판매한 이력을 관리(수정, 삭제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할 수 있는 ‘판매이력조회’ 화면 등으로 구성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개발했다. 판매처별 재고현황 데이터가 오픈API를 통해 공개됐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마스크 관련 정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다. 오픈 전까지 버그 등을 확인하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던 전담팀은 마침내 오픈 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보고 환호성을 올렸다. 물론 마스크 판매로 인한 현장의 업무는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이같은 시스템으로 인해 마스크 구입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현장 근무자들의 보람이 더욱 커진 것 또한 사실이다.

“마스크 판매로 인해 약사들의 업무는 가중됐어요. 그래도 마스크중복구매 확인시스템으로 약사에 의해 마스크를 공정히 분배하고 구매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죠. 이로써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환자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마스크 판매를 통해 저 또한 코로나19 시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또 타이레놀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어딘가는 품귀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전에 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이 조금 더 긴밀하게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처럼 특정한 제품이 먼저 대중에게 인식되기 전에 약국에서도 충분히 물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요.”

강남 모건약국 이영은 약사

그들은 모두 자신의 역할을 했다

전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히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확산을 차단해야 했다. 전국적으로 의심환자를 검사하기 위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고, 지자체는 의심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파악해 공유했다. 의료인들도 앞다퉈 코로나19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

“종교시설별 감염자들이 대구를 비롯해 인근지역에서 쏟아져 나온 때였어요. 처음 음압병실로 이동하기 전 방호복을 입던 순간을 기억해요. 방사선사는 기본 방호복 외에도 10kg

상당의 방사선 전용 방호복을 입어요. 그럼에도 혹시 어디 빈틈이 있지는 않나, 이 방호복이 정말 감염을 막을 수 있나,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감염병동이 2층에 있는데 평소라면 웃으면서 인사를 주고받았을 직원들도 모두 긴장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김홍식 방사선사

의료인력과 행정인력이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에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은 끊이지 않았다. 소속된 지역에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면,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달했다. 전신을 가린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일선 공무원들은 날마다 많게는 수천 건에 달하는 검사와 민원 응대를 감당해야 했다. 진료소 외에도 현지조사 인력을 비롯해 의심환자를 후송하는 인력, 자가격리 국민을 지원하는 인력 등이 한계를 넘어선 헌신적인 활동으로 확산방지에 기여했다.

“부천시보건소는 파트별로 업무를 나눠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검체 검사과정에 전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초기만 해도 검사에 부정적인 분들도 있었죠. 현장에서 욕하고, 소리지르고, 발로 차는 분들도 많았어요. 팔을 깨물려 파상풍 주사 맞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업무가 가장 과중됐 때는 지난 해 5월로 기억하는데요.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으로 1일 검체량이 2천 명에 달한 때였죠. 매일 거의 자정까지 근무해야 했습니다.”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홍영애 과장

35년 경력의 홍영애 과장에게도 이번 코로나19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으로 기억된다. 100여 명의 부서 직원들과 함께



매일 밀려드는 검사 요청 건에 일일이 대응하는 동안 그녀는 팀장에서 과장이 됐고, 새로운 해를 맞았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발을 맞춰온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이제 더욱 능숙하게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전히 계속되는 위협

2021년이 돼서도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강력하고, 적지 않은 의료인들은 생업의 위기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발걸음은 사명감으로 여전히 현장을 향한다. 폐업의 고민이 가시지 않는다는 강희선 원장도 생업을 뒤로하고 현장으로 달려간 경우다.

“지난 12월 대한의사협회에서 현장에서 근무할 의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했어요. 원래 개원의가 3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가능하더군요. 코로나19로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의 타격이 심해요. 저도 여러 달 매출이 90% 까지 감소한 적이 있어요. 폐업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하자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종로 예림이비인후과 강희선 원장

강희선 원장은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상 이유로 잠깐 휴식을 취한 한 달께를 제외하고는 줄곧 코로나19 병동을 지키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일반병동에서 당직 근무를 한다. 그렇다보니 다양한 사연의 환자들을 두루 만나왔다. 암치료 과정에서 확진이 돼 치료를 중단해야 했던 환자나, 부부 모두 의심환자로 입원했다가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만 생존한 경우 등 마음 아픈 이야기도 허다하다. 하지만 그가 힘주어 강조한 것은 의사로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의 강력한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요양병원 확진자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백신 접종 후 혈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혈전이라는 것은 결국 약물로 조절할 수 있고, 백신 접종 시 발생하는 혈전의 양은 실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혈전을 생각한다면 논할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 병원에서 백신 접종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주변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맞는 분들도 있었지만, 최근 접종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종로 예림이비인후과 강희선 원장

현장의 종사자들은 감염병 확산과 방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례가 되기도 한다. 홍영애 과장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직원 중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부천시보건소의 상황을 강조했다. 매일 의심환자와 확진자들을 마주해야 하는 현장이다보니 감염에 대한 불안이 높았다. 하지만 직원들 스스로가 방역지침 및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코로나19에 꼭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우리 방역체계가 잘 만들어져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다시 비슷한 감염병이 닥친다고 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엄격하고 섬세한 우리의 방역수칙은 또 다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홍영애 과장

코로나19는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 다시 현장으로!

정부는 지난 6월 15일을 기점으로 국내 백신 접종자가 1,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시점에도 의료인이나 정부기관 어느 누구도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코로나19 현장의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이들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뭐라도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역 자원봉사를 신청했고 대구시청에 배정 받아 2주간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당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택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일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담 결과를 카톡이나 전화로 받아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을 했습니다. 휴일 없이 지속되는 일이라 지칠 때가 많았지만





응원의 말씀과 전국에서 밀려든 온정의 손길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본격적으로 중수본 진료지원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화로 의료 상담이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죠. 이를 통해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나 재외국민까지도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지만 이렇게라도 K-방역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지양 과장(보건복지부 중수본 파견)

“손세정제를 많이 쓰다 보니 손이 많이 텃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해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격리시설에서 지내며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일을 기억해 그에 보답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배우는 것도 많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보람이 크죠.”

광진구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서혁재 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백신을 제공하자는 마음으로 잠시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내려놓고 질병관리청 파견근무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백신물류창고와 접종기관 그리고 보건소 등에서 백신 콜드체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했고요. 또, 백신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파견근무는 심사평가원의 핵심가치에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요한 대리(질병관리청 중대본 파견)

심사평가원 역시 최선을 다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진행상황에서 심사평가원은 마스크 배분에 크게 기여한 마스크중복구매 확인시스템과 함께 DUR이나 ITS*의 적극적인 활용에 나섰다.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심사평가원과 전국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번에도 확진자와 사망자

*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해외여행력정보 제공시스템

발생 현황 등 필요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데 DUR이 활용됐다.

ITS는 감염병 관련정보가 DUR 이전인 방문환자 접수·진료 단계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8년부터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DUR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을 기반으로 백신별 이상반응의 초기 증상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ITS 미이용 기관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국 의료기관에 1:1 유선 안내 및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ITS 이용률이 크게 향상됐죠. 코로나19 사태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고 환자의 이상 증상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DUR이나 ITS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안전에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시스템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갖는 동시에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시스템의 기능을 더욱 개선해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안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DUR정보부 김성훈 대리

여전히 뜨거운 현장의 열기는, 계속되는 감염병의 도전에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에서 비롯한다. 한 명의 누군가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자가 제몫의 일을 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국민 모두를 영웅이라고 부르기 충분하지 않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21주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창립 21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과 함께한 21년,
새로운 시작으로 알고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설립 21주년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21년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매일 새로운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 20주년을 맞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대로 된 행사도 한번 못하고 일 년이 지나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의 피와 땀이 국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켰다는 역사가 고스란히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경영평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은 경영평가 연속 A등급이라는 결과로 돌아와 우리 이마에 맺힌 땀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는 것 같아 기쁩니다.

21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3년째 노력을 기울였던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더욱 구체성을 띠어가고 있습니다. 보장성강화 정책도 4년차를 맞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체계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우리 원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실증랩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20년 넘게 숨 가쁘게 발전해 온 적정성 평가를 환골탈태하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보가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PHR(개인건강기록) 구현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향후 도래할 시기에 대비해 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는 모든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일을 설계하고 추진하기에 앞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관을 만들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전문성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와 청렴을 기본으로 여기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설립 21주년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21년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매일 새로운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선민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조신입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틀을 마련하기까지 창립 21주년을 맞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과 함께하였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상임감사로서 저는 항상 배우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가 기관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사평가원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더 높이고, 어느 공공기관보다 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임직원이 열정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평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등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와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사회적 책무감을 높이는 인프라와 함께, 수용도가 높은 감사 규칙 등을 마련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이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더 높이고, 어느 공공기관보다
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이진수입니다.

본인은 23년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2001년 9월 귀국한 이래 2020년 말까지 줄곧 국립암센터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이제 심사평가원의 한 식구로 함께 일하게 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보와 유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고 그 해결 방안이 쉽지 않음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의 경험과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입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 변화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무적 건전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창립 21주년을 맞아 심사평가원이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을
지키는 보루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심사평가원에 대한 신인도 향상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방대한 국가 단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의학학적 타당성 판단과 근거기반 심사기준 및 정책대안 마련에 필요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창립 21주년을 맞아 심사평가원이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을 지키는 보루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신현웅입니다.

어느덧 심사평가원 개원 21주년이 되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1년 동안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의료기관을 심사하고 평가하여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첨단 ICT 시스템과 전문역량을 결집하여 ‘마스크중복구매 확인시스템’, ‘환자 해외여행력 실시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태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이라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기, 저성장 기조의 뉴노멀 시대, 디지털 변화라는 새로운 혁신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기반으로
「Global HIRA, Smart HIRA」에 걸맞은 미래 건강보험
선도 기관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스마트하며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기반으로 「Global HIRA, Smart HIRA」에 걸맞은 미래 건강보험 선도 기관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ESG 경영,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 심사평가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의료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돕는다.”

심사평가원의 미션처럼 국민 한분 한분이 더 낮은 의료비 부담으로,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 디지털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를 완성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장용명입니다.

심사평가원 창립과 함께 해온 일원으로서 그동안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해주신 선배님들과 오늘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동료들에게 축하와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국민과 이해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심사평가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노력과 역량을 뒤돌아보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는 등 미래 20년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심사평가원 창립 21주년!!, 심사평가원이 성인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오늘의 한걸음, 한걸음이 50년, 100년 후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임을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본질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가 더 좋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임원은 임원으로서, 관리자는 관리자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Digital HIRA를 기반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를 완성하겠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불철주야 땀흘려온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김남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간 국민 여러분께 경의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1년이 넘어가는 긴 감염병 위기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낸다면 동료와 친구, 그리고 부모형제와 함께 반갑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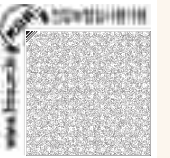
지금 심사평가원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도전과 열정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된 심사평가체계가 잘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학적·통계적 근거를 기반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의료의 질과 진료비를 관리하는 체계가 조속히 작동되도록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임직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스물한 살의 심사평가원은 어느 조직보다 건강하고 열정적이며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평가원에 필요한 변화와 혁신은 임직원의 손으로 멋지게 이루어낼 것입니다!!

업무이사로 취임할 때 다짐한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며 소통을 넘어 공감의 에너지가 넘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불철주야 땀흘려온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이진용입니다.

심사평가원이 스물한 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자면 심사평가원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 성년기에 진입하였습니다. 성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심사평가원이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정책 현안 연구와 더불어 미래 정책방향을 대비하는 연구, 제도의 틀에 갇힌 연구가 아닌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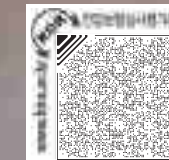
또한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때 제공하는 정보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실증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31일 창간한 심사평가원 공식 학술지, 「HIRA Research」가 의료계·학계·정부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각 분야가 소통하며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힘쓰겠습니다.

20년 뒤,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년기를 보내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적인 성년기 뒤에는 안정적인 장년기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창의적이고 열린 전문성을 갖추고 심사평가연구소 임직원들과 함께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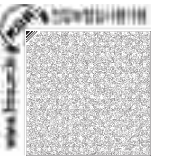
“창의적이고 열린 전문성을 갖추고
심사평가연구소 임직원들과 함께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홍보대사 ‘여행스케치’

글: 이현아 사진: 헬리오포트 스튜디오

자연과 꿈을 노래하는 데뷔 30주년의 대한민국 대표 포크그룹 ‘여행스케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24일 여행스케치를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여행스케치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생소하지만 유익한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심사평가원 홍보대사가 된 여행스케치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이 만나 보았다.



심사평가원: 오랜만에 만나서 더욱 반가운 여행스케치입니다. 최근의 근황은 어떠신가요?

여행스케치: 안녕하세요, 가수 여행스케치입니다. 저희는 1989년 명지대학교 백마가요제를 통해 데뷔하였습니다. 데뷔한 후 줄곧 대학가와 소극장 공연 위주로 활동했었는데, 작년 4월엔 jtbc '슈가맨3'에 출연해 3040 세대의 향수를 일으키기도 했죠. 올해 여행스케치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예전 멤버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팬들을 만날 기대로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엔 함께 만든 신곡 '손끝 무지개' 라는 싱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심사평가원: 이번에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홍보대사를 맡게 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게 되신 건가요?

여행스케치: 바쁜 스케줄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여러 번 병원에서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어요. 그때 병원 업무나 진료비,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죠. 그러던 중에 최근 심사평가원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국민들이 알면 좋을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이런 좋은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홍보대사도 수락하게 되었고요.

심사평가원: 데뷔 30주년 그룹인만큼 여러 종류의 대외 활동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홍보대사 위촉 건이 좀 더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또 그로 인한 포부나 기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행스케치: 생명의 전화, 치매 극복 관련 홍보대사를 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재능을 기부해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조금 생소한 정보일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정말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심사평가원: 여행스케치도 이번 홍보대사 위촉 건을 계기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셨을 것 같네요. 아직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이 서비스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때 이를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입니다.**
”



여행스케치: 병원을 이용하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잘못 청구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벼운 병이나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지 않으면 진료비 내역 확인을 간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이 낸 비급여 진료비용이 맞게 청구되었는지 궁금할 때, 심사평가원에 이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입니다.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 등에서 진료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 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더 많이 낸 비용이 확인되면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심사평가원: 아티스트로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여행스케치: 저희 여행스케치가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라떼' 가수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여전히 신곡을 꾸준히 발표하고,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부분적인 제약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면 공연무대를 더 많이 가지며 국민들에게 건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이번 호는 특별히 심사평가원의 창립을 기념해 발간될 예정입니다. 심사평가원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축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행스케치: 아는 만큼 믿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 보도를 통해 잘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며 발전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일회성 행보가 아닌 꾸준히 돕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올해 여행스케치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예전 멤버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모바일 앱

스마트기기(핸드폰, 태블릿
등)에 건강정보 앱 설치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우편 및 FAX

필요서류를 우편이나 FAX를 통해
심사평가원으로 발송



직접 방문

필요서류 준비 후 가까운
심사평가원(본·지원)
민원상담실로 방문



방광의 감기 몸살 ‘방광염’

날이 더워지면 응급실에 슬슬 늘어나는 비뇨의학과 질환 중 하나가 급성 세균성 방광염이다.
방광의 감기몸살로 비유되는 방광염은 주로 여성에게, 피곤하거나 힘들 때 자주 발생한다.
방광염,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할까?



글. 이화의료원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윤하나 교수



방광염은 어떤 질환일까?

여름철 여성을 자주 괴롭히고, 심할 경우 전신 감염까지도 일으키는 급성 세균성 방광염은 소변이 새빨갛게 나오고 때로는 선지 같은 핏덩어리가 소변에 섞이기도 하며, 요도가 타는 듯 아픈 증상이 특징이다. 대부분 자다가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아프고 잔뇨감이 심하게 느껴지더니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에 놀라서 병원을 찾게 된다.

급성 세균성 방광염은 방광 내에 침투한 대장균과 같은 병원균이 방광점막에 들러붙어 증식하면서 발생한다. 소변색이 탁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면서 소변 볼 때 요도가 타는 듯이 아프거나 저릿한 증상이 있고, 소변을 자주 보는데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과 방광 쪽의 통증이 지속된다. 때로는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절박뇨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 화장실 가는 동안 실수를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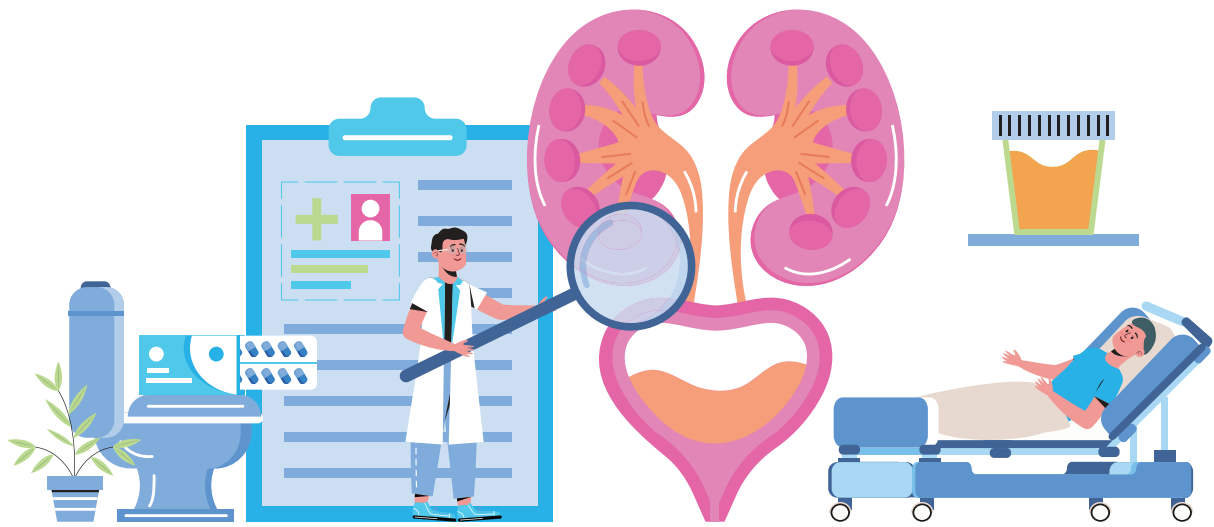
급성 방광염 환자들이 가장 놀라고 걱정하는 증상은 혈뇨이다. 변기에 피오줌이 그득하다면 안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방광염 증상 중 안심해도 되는 증상이 바로 이렇게 통증이 심하면서 혈뇨가 나오는 것이다.

세균성 방광염은 세균 감염으로 방광 점막이 붓고 충혈되며,

점막이 탈락되면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이라 상당한 통증과 혈뇨가 반복되다가 없어진다. 하지만 비슷한 증상으로 혈뇨, 잔뇨감, 빈뇨가 있으나 통증이 없다면 걱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장 의심되는 질환이 바로 암(방광암, 요관암, 신장암 등의 요로계 암)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처럼 통증 없는 혈뇨는 몇 번 나오다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없어지고, 또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나오는 등의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통증은 전혀 없는데 소변이 붉게 나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하다.

급성 방광염의 치료와 예방

급성 방광염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급성 세균성 방광염은 통증이 심하고 피도 많이 나지만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치료는 어렵지 않다. 적절한 항생제와 방광에 쓰이는 소염제, 방광근 안정제를 쓰면 증상이 완화된다. 치료를 언제 시작하였는지, 염증에 얼마나 자주 걸리는지, 원인 세균의 항생제 내성이 생겼는지에 따라 치료 기간은 3~7일 정도 걸린다. 말 그대로 방광의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만 잘 맞는다면 2~3일만



약을 복용해도 금방 좋아진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항생제인 세파게 항생제와 퀴놀론계 항생제는 요로감염의 주된 원인균인 그람 음성 세균(대표적으로 대장균)에 효과적인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세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높아져서 진료 시 항상 항생제 내성 확인 검사를 한다.

급성 방광염의 빠른 치료와 재발 예방, 증상 개선을 위한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다. 소변량이 늘어나면 방광 안의 세균이 소변에 씻겨나갈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평소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들이 방광염에 잘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더 자주, 평소보다 200~300cc 이상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예방에 도움 된다. 음료수, 커피, 국물류 등은 방광에 더 자극만 될 뿐 수분 배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마시는 생수나 물이 좋다.

여성에 더 위험 ... 심해지면 패혈증까지도

방광염은 성인 여성 30% 이상이 살면서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여성에 흔한 질환이다.

방광은 남녀 모두 같은 모양인데, 방광염은 왜 유독 여성에게 더 흔할까? 그 이유는 바로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인 구조 차이에 있다. 여성의 요도 위치는 질 입구와 아주 가깝다. 요도 바로 뒤에 질 입구와 항문이 있다. 질과 항문은 정상적인 환경일 때도 세균이 늘 상주하고 있으며, 특히 항문 주변에는

대장균이 흔하다. 요도의 길이도 4cm 정도로 남성에 비해 훨씬 짧고 모양이 곧게 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세균들이 방광에 쉽게 침범할 수 있다. 남성은 요도입구에서 방광까지의 길이가 16~18cm 정도로 길고 구부러져 있으며, 중간에 전립선, 정낭 등 항염 성분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성인 남성에게 방광염이 생긴다면 전립선이나 방광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게 된다.

방광염은 주로 성관계 후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밀월 방광염(honeymoon cystitis)이라고도 한다. 여성은 방광 입구인 요도가 질 바로 앞쪽에 있다 보니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서 생긴 용어다.

방광염은 자주 재발할 수 있으므로 평소 배뇨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용량의 소변을 일정 간격으로 배출하는 것은 다양한 경로로 방광에 들어간 세균을 방광 점막으로부터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보통 하루 5~6회 정도, 3~4시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보는 것이 정상이다. 평소 성관계 후 잘 생기는 편이라면 성관계를 하는 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들여야 한다. 불결한 성관계를 피하고, 성관계 전후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며, 소변을 보는 것이 좋다.

방광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발성의 급성 세균성 방광염은 큰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된다. 하지만 극도로 피곤하고 탈수가 된 상태에서 방광염이 생기면 세균이 순식간에 혈류를 타고 신장으로 퍼져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급성



신우신염은 혈액이 걸러진 소변이 나가는, 콩팥의 깔때기 역할을 하는 신우 부위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다. 옆구리가 아프고 메스꺼우며 39℃ 이상의 고열과 몸살증상이 동반된다면 신우신염이 의심되므로 속히 병원에 가야한다. 건강한 성인이 신우신염을 한 번 앓았다고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지만 당뇨와 같이 감염에 취약한 기저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급성 신우신염은 전신 감염, 나아가 패혈증으로 진행되기 쉽다. 시작은 단순한 방광염이었으나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년층이라면 방광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개인의 배뇨습관 및 일상 생활습관, 유전적 소인이나 비뇨기계의 모양, 방광의 면역력 상태 등에 따라 재발률이 특히 높을 수 있다. 보통 1년에 3회 이상, 6개월 이내 2회 이상 소변

배양 검사에서 균이 발견되는 세균성 방광염이 반복되면 만성 세균성 방광염으로 진단한다. 만성 방광염은 증상의 잦은 재발, 늦어지면 완벽히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점, 최종적으로 방광이 헐어서 망가지는 간질성 방광염으로 이행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만성 재발성 방광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평소 물을 하루 1.5~1.8ℓ 내외로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 C, 무기질,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있다. 치료법으로는 수개월간 대장균에 대한 내성을 키워주는 면역 강화제를 복용하거나 방광 안에 주기적으로 약을 주입, 방광 점막을 코팅하여 감염으로부터 방어벽을 튼튼히 만들어 주는 방법 등이 있다.

Tip. 종류별 방광염



- 방광 내에 침투한 병원균이 방광점막에 둘러붙어 증식하며 발생
- 소변색이 탁하고 냄새가 나며, 심하면 혈뇨 증상을 보임
- 성관계 후 세균 감염으로 발생
- 증상이 수차례 재발되는 상태로 늦어지면 완전한 치료 어려워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가 중요
- 증상이 수차례 재발되는 상태로 늦어지면 완전한 치료 어려워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가 중요



구강보건의 날, 함께 알아보는 치과질환

지난 6월 9일은 정부가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구강보건의 날이었다.
처음 이가 날 때부터 인공치아에 의존하게 되는 날까지, 치아 질병 관련 통계(2020년 기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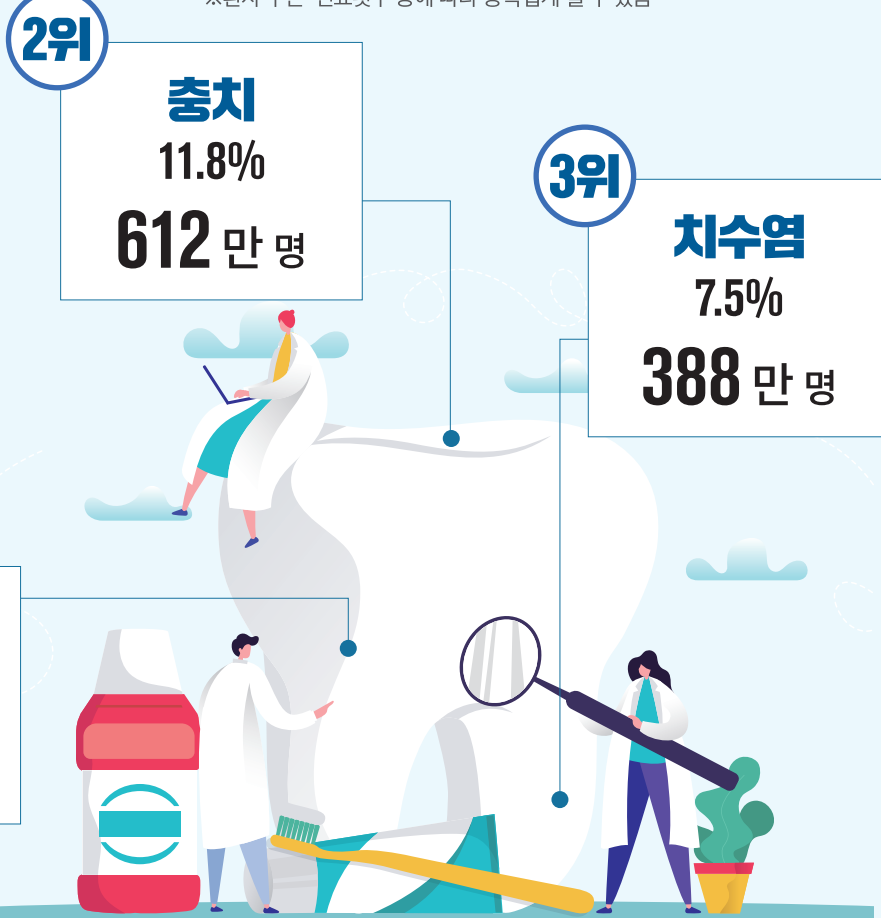
정리. 편집실

1 전체 환자 수



2 치과 다빈도 질환 TOP 3 (전체 환자 대비 비율)

※환자 수는 진료횟수 등에 따라 중복집계 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건강보험 치과 외래 진료일 기준입니다.
-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령별 환자는 진료비 명세서에 기재된 수진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나이이며, 진료시점에 따라 중복집계 될 수 있습니다.
- ※ 치과 관련 더 자세한 비급여진료비 정보는 아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진료비정보

3 연령별 다빈도 질환 TOP 2 (연령대별 환자 대비 비율)

19세 이하



충치
26.3%

치아 발육·맹출 장애
20.0%

20세 이상



잇몸질환
35.0%

충치
9.1%

60세 이상



잇몸질환
36.1%

치수염
10.1%

4 연령별 주요 치과 시술 (인구대비 환자 비율)

19세 이하



충치 떼우기
5~9세의 38.6%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2세 이하의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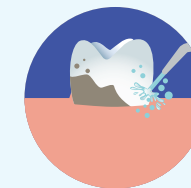
※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영구치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치아 홈메우기

19세 미만의 7.0%

※ '17년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감소 30% ⇒ 10%

2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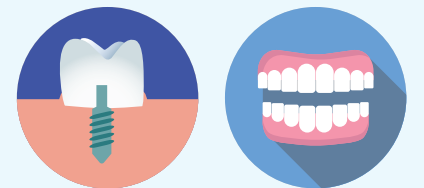
스케일링
20대의 33.1%

30대의 31.2%

50대의 32.1%

※ 스케일링은 만 19세부터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임플란트
65~69세의 12.4%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18년 본인부담률 50% ⇒ 30%로 완화)

틀니

75세 이상의 4.2%

※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17년 본인부담률 50% ⇒ 30%로 완화)

여름에 좋은 체질별 한방 약재



글.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소화기/보양 클리닉 고석재 교수

한의학에서 보는 여름

『동의보감』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하늘의 기운이 뜨거워 땀이 항상 많으므로 인체의 양기(陽氣)가 체표로 들떠서 흩어지므로 배 안의 양기가 허약해진다."고 하였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일년 중 여름은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로, 인체 또한 양기가 가장 왕성해져 그 활동영역이 체표로까지 넓어진다. 하지만 오히려 체내의 양기가 허해져 식욕이 떨어지면 자꾸 늘어지고 자주 무기력하게 된다. 또한 속이 차가워지기 쉬운데, 덥다고 찬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배탈, 설사가 나기 쉽다. 따라서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여름철에 쉽게 소진되는 양기를 북돋기 위한 방편으로 보양(補陽)을 하는 약재들이 다용되어 왔다.

체질에 맞는 보양 약재 선택하기

체질은 성격이나 체형, 병이 발생했을 때 몸이 나타내는 반응 등으로 사람의 특성을 구별하여 나눈 네 가지 유형으로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이 있다. 같은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에 따라 덥고 찬 기운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체질에 맞게 보양 약재를 선택하는 것은 다음 계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소양인에 좋은 여름 약재

소양인은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짜증을 잘 내고 성격이 급해지는 경향이 있다. 땀을 흘릴수록 체력은 더욱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 운동도 기피하게 된다. 소양인에게 여름철 인삼, 홍삼 등은 열을 더욱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한 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소양인의 건강 상태는 소변에 주로 잘 나타나는데 소변색이 짙어지고, 시원하게 보지 못하며, 오래 참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않은 징조로 볼 수 있다. 숙지황, 구기자, 산수유, 복분자, 목단피 등이 잘 맞고 음식으로는 오리고기, 장어가 대표적 보양식이다.

소음인에 좋은 여름 약재

소음인은 몸이 차고 소화기가 좋지 않으므로 여름철 찬 음식이나 상한 음식 섭취 시 구토, 설사, 복통의 증상 발생이 쉽다. 또한 소음인은 더위에 체력의 저하와 피로로 몸이 처지기 쉽고, 무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더욱 냉해져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 여름철 냉장 음식과 에어컨에 몸을 가장 많이 상하는 체질이다. 여름철 보양이 가장 필요한 체질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소음인에게는 소화하기 쉽고 따뜻한 성질의 약재가 잘 맞는다. 인삼이나 황기, 생강, 계피와 같은 전통적인 보양약이 소음인에게 잘 맞고, 음식으로는 조리할 때 파나 마늘을 사용해서 식욕을 북돋워 주는 것이 좋다. 삼계탕과 보신탕은 소음인을 위한 대표적 여름철 보양식이다.

태음인에 좋은 여름 약재

태음인은 보통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고 체격이 건실해진다. 더위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체질이지만 잘 움직이지 않아 살이 찌기 쉽고 변비, 소화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관리가 어려운 체질이기도 하다. 태음인은 운동의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며 땀을



흘려도 몸이 가볍고 시원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몸 관리를 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 태음인에게 잘 맞는 대표적 약재는 녹용이며, 마, 도라지, 율무, 오미자, 맥문동, 마황 등도 잘 맞다. 음식으로는 연근, 양배추, 무 등 야채와 수박, 복숭아, 사과 등 과일이 좋고, 소고기, 명태 등이 보양식으로 합당하다.

태양인에 좋은 여름 약재

태양인은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으며 상체가 발달한 특징적 골격을 가지고 있다. 4가지 체질 중 체력도 가장 좋고 근육도 잘 붙는 특성이 있다. 심폐기능이 좋아서 장거리 유산소 운동도 잘 맞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면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기 힘들며,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은 느낌, 머리가 멍하고 아픈 느낌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본인의 건강상태를 정밀히 체크하여 보는 것이 좋다. 태양인 약재로는 오가피, 모과가 좋다. 특히, 교맥, 노근, 백모근, 송절, 초롱담, 포도근 등 잘 구할 수 없는 특이한 약재가 많다. 이로온 음식으로는 더운 식품보다는 신선하고 시원한 식품으로 자극성이 적고, 담백한 맛이 적합하다. 메밀이나 당면, 새우, 조개류가 좋고 차로는 모과차나 감잎차, 오가피차가 적합하다.

체질과 무관하게 마실 수 있는 여름철 한방차

더위를 이기는 체질과 관계없이 여름철 마실 수 있는 차를 소개한다. 먼저 죽엽 박하차로서 피를 맑게 하고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한다. 여름철 더위로 식욕이 부진할 때, 몸에 기운이 없고 피로할 때, 눈이 충혈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죽엽, 박하, 대추를 넣고 물로 끓여 음용한다. 단오날에는 제호탕을 음용하면 여름을 잘 날 수 있다고 하였다. 제호차는 오매육이 주재료인데 오매육은 푸른 매실을 질그릇 냄비에 넣어 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겉게 구워 말린 것을 말한다. 백작약 감초차는 여름에 더위를 타고 입맛이 없을 때,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알맞은 건강차이다. 백작약, 감초, 꿀, 설탕 약간을 섞어 물로 끓인 다음 섭취한다.

여름철 건강 관리법

우선 냉수(冷水)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차가운 식품의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아울러 과도한 활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것 또한 삼가는 것이 좋다. 땀 또한 우리 몸에 필요한 진액(津液)의 하나로서 발한은 과도한 진액 손실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친 흥분이나 격한 감정은 체내의 열 생산을 조장하므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도한 냉방은 배앓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름철 뱃속은 이미 냉한 상태인데 에어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더욱 냉해지기 때문이다. 인체는 계절에 적응하고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더위를 느끼며 지내는 것이 좋다. 더위가 심한 경우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한 후 그늘이나 자연풍으로 더위를 식히며 지내도록 하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미술품은 다른 문화예술품과 달리
유일하게 실물을 소유할 수 있는
장르에 속해 있다.
미술작품은 그 자체로도 심리적인
위로를 주지만 작품에서 파생하는
여러 행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작품을 향유할 수 있다.



마음에 걸고 싶은 그림 한 점



글. 손이천 케이옥션 수석경매사

미술품의 치유적 기능

전지구적 재난 이후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던 사례가 있었다. 중세시대 흑사병이 창궐한 이래, 이전에는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미술품이 대중화되었다. 여기에는 조속한 재난상황의 복구를 기원하는 바람이 미술품을 통해 드러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술품을 통해 위로를 찾으려는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미술품의 보급이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인간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신조어 ‘코로나블루’는 인간 내면이 재난과도 같은 일상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잘 표현하는 현상이다. 활동의 과도한 제약으로 심리적 무기력감에 빠지기 쉬우나 자기 자신을 독려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방법도 딱히 많지 않다. 이렇듯 전지구적으로 한 시대를 관통해 영향을 미친 재난적 상황에서 미술품은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미술품은 그 자체로 인간의 내면에 닿아 위로와 치유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술품은 인간 내면과 소통을 시도하고, 정서적 손상이 일어나는 지점에 위로를 전한다. 온전히 자신의 취향을 통해 스스로와 소통하며,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손상된 능동성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미술품 시장 다시 활기

이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던 미술품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케이옥션은 올해 들어 10년 사이 거래 최고액을 달성했다. 미술품 거래를 소수의 컬렉터들이 점유했던 때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술품 경매가 활성화되며 다양한 작품의 폭넓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미술품은 수익률에 앞서 작품을 거래하는 구매자의 취향과 기호가 깊이 개입한다. 따라서 미술품은 투자 가치 이전에 그 작품과 상호소통하며 누릴 수 있는 심미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만일 그 작품이 무리하게 자금을 융통해 구입한 것이라면 그 작품의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한들 그로부터 느낄 수 있는 감상의 효과가 어떻게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거래의 수익적 가치가 더욱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미술품 거래에 대한 변화된 대중의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 최근 옥션에 유입되고 있는 신규 회원들만 보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읽힌다. 지난 1년간 케이옥션에 새롭게 가입한 회원 중 80%가 1천만원 미만의 작품에 응찰해 낙찰을 받았다. 물론 옥션의 매출액은 고가의 작품이 포진한 20% 낙찰 건에 크게 의지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에 없던 구매자들의 새로운 유입은 유의미한 시그널로 보인다. 처음 옥션에 가입, 1천만원 미만의 작품을 구매해 소장하는 이들은 자신의 실제 자산 규모에 맞춰 손에 넣을 수 있는 미술품과 상호작용하기를 원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과도하지 않은 영역에서 지극히 탐미적으로 자신의 취향을 좇는 행위는 외부적 활동이 제한된 코로나19 시대 자존감을 높이고 능동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술품 감상에 더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법

미술품을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확실한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면 미술품 구매에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비록 결국 원하는 그림을 사지 못한다고 해도, 그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미술품에 접근하는 것은 색다른 감상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갤러리 등의 1차 시장과 옥션 등 2차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만일 미술품 구입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면 옥션은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이다. 옥션에 나온 작품은 이미 1차 시장에서 선택을 받았던 작품인데다, 또 그것을 선택하는 옥션의 추가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완전히 신규 작품을 선택해 그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를 향유하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다. 많은 경험과 노후자가 쌓인 후에는 갤러리 등의 1차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해 신진작가를 찾아내고 그들의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더 큰 만족감도 있을 것이다.

미술품 컬렉션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시각적으로만 경험했던 미술품 감상을 내 것으로 가지는 새로운 경험의 단으로 끄집어 올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족이나 연인,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친구 등이 소통하며 미술품을 하나의 취미활동으로까지 폭넓게 즐기고 있다. 실제로 최근 옥션을 방문해 주거공간에 장식할 수 있는 그림이나 미술품 등을 찾는 경우가 꽤나 자주 발견된다. 처음에는 부부가 방문해 후보군을 고른 후, 다른 가족들까지 확장해 선택에 대해 논의한다. 미술품은 개인의 기호와 취향을 반영한다. 가족 단위에서 기호와 취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를 일상생활로까지 끌어낼 수 있는 취미활동이 얼마나 될까.

내 마음에 걸고 싶은 그림 한 점이 언제까지 수십년 전 교과서에서 봤던 유명작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술품을 보고, 선택하여 구매해, 내 가까이에 두는 행위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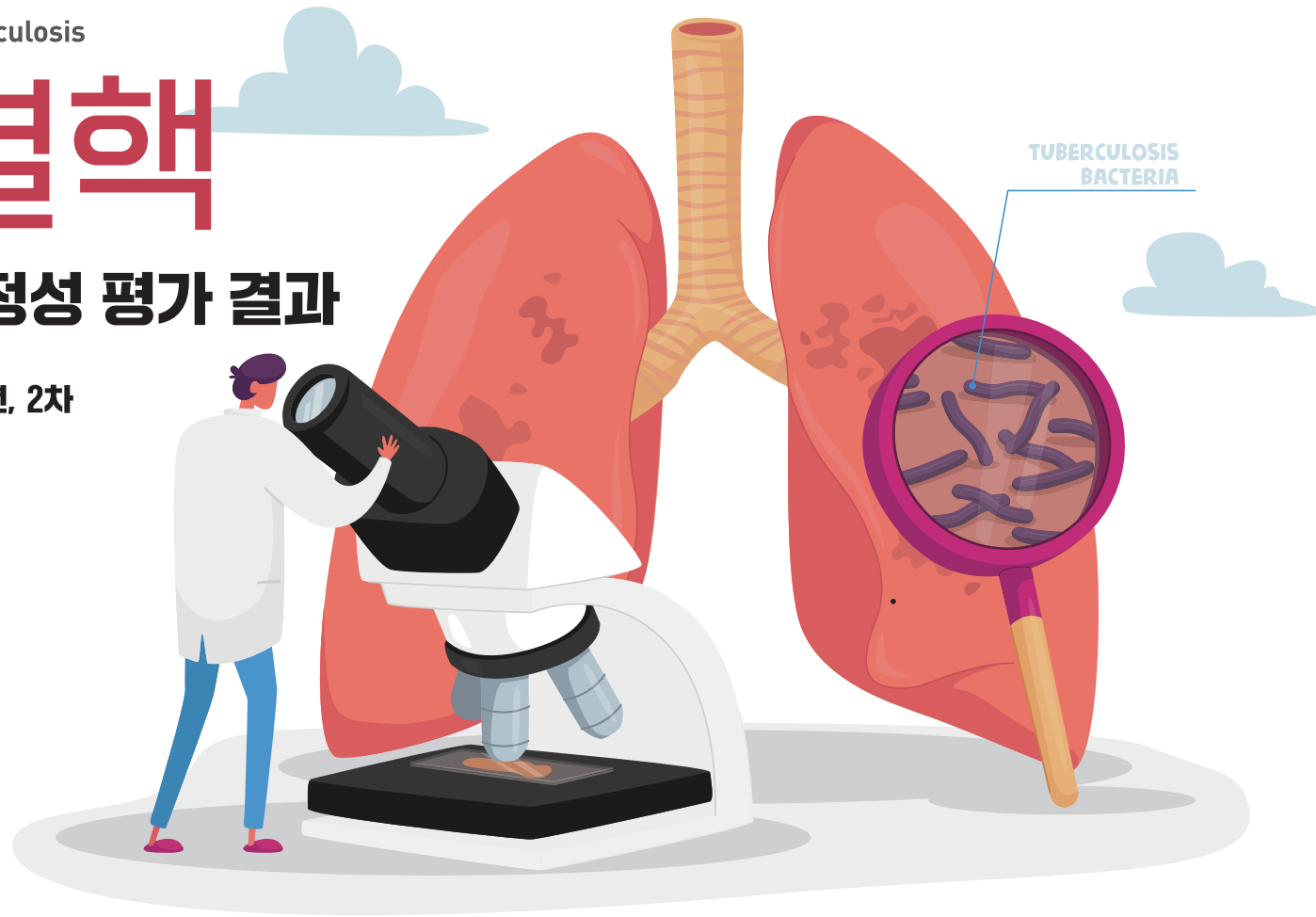


Tuberculosis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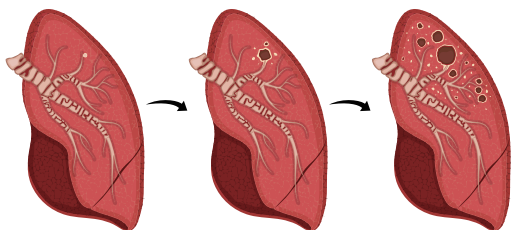
2019년, 2차



평가개요

결핵은?

- 국내 결핵 신환자는 2011년 최고치 이후 8년 연속 감소추세로, 2019년 신환자율은 46.4%임
- 그러나 결핵은 여전히 법정 제2급감염병으로 감염 전파 예방과 격리, 장기치료 등 질병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통해 결핵 신환자 진료 수준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 수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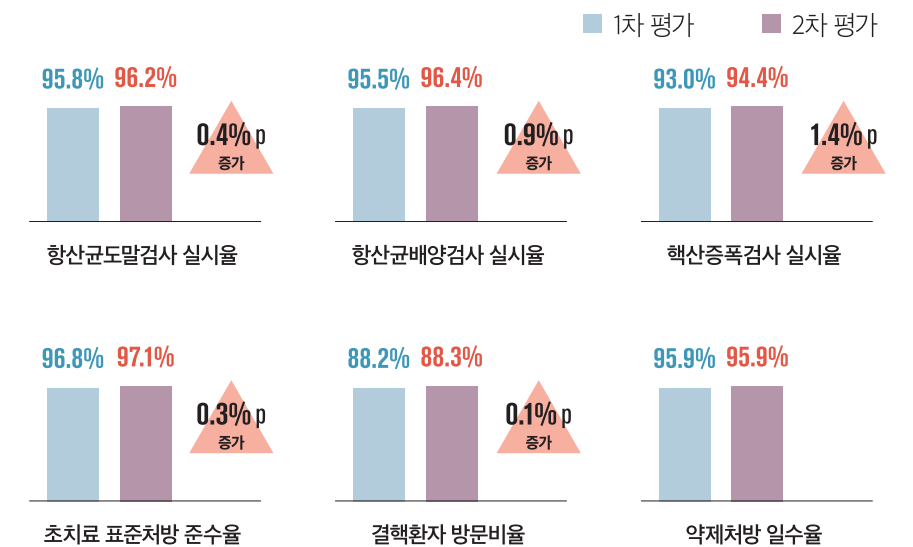
평가 개요

- **대상기간** : 2019년 1~6월(입원 및 외래 진료분)
※ 1차: 2018년 1~6월
- **대상기관** :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제외기관: 방문당 수가 적용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등)
- **대상자** : 평가대상 기간 중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제외환자: 다약제/광범위 약제 내성 환자, 보건기관에 신고 내역이 있는 환자
- **평가기준** : 평가지표 6개
- **평가자료** : (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질병관리청) 평가 기간 동안 결핵 신환자 신고자료,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평가결과

평가지표별 종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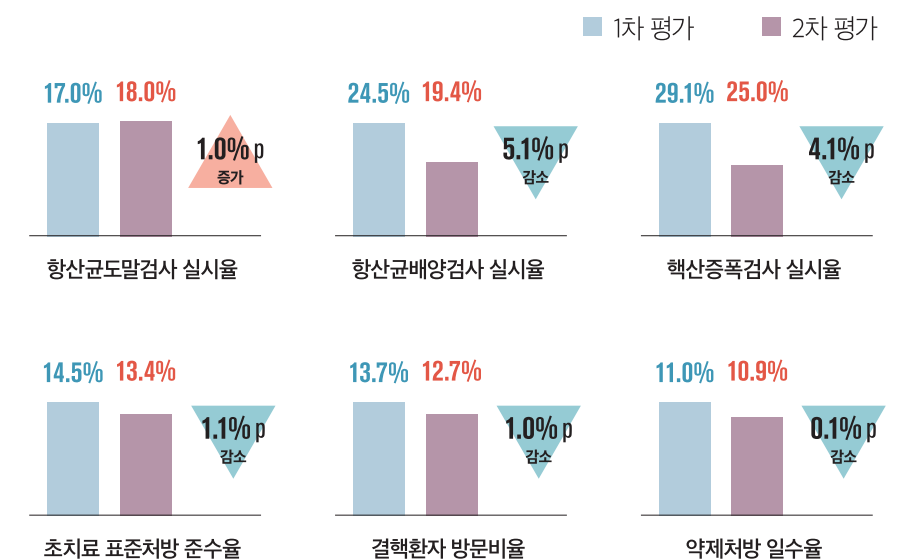
- 1차 평가 대비 5개 지표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가장 큰 폭(1.4%p)으로 증가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결핵환자 방문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병·의원급에서는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가장 낮음
- 대부분의 지표에서 PPM* 기관이 Non-PPM 기관에 비해 평가결과가 높으며,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에서 가장 큰 폭(6.2%p)의 차이가 나타남



*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사업: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

의료기관종별 표준편차 현황

- 1차 평가 대비 5개 지표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이 가장 큰 폭(5.1%p)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기관별 편차가 전반적으로 줄어듦
- 의원급에서는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의 편차 감소폭이 큼 (각각 15.3%p, 9.9%p)



우리 동네에서
“결핵” 치료를
잘하는 병원은
어디 있나요?

- ‘병원평가정보’는 수술, 질병, 약제 사용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의학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를 클릭하면 우리 동네 병원의 결핵 관련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

우상현 W병원장



수지접합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 수부 절단 및 손상 상태를 접합해 회복 치료하는 분야다. 이를 다루는 수부외과는 손과 팔에 대한 모든 질환과 외상을 치료하는 진료과목이며 성형외과·정형외과 전문의 취득 후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정식으로 2~3년간 수련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수부외과 전문의를 보유한 우리 지역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만나본다.

글. 이현아 사진. 헬리오포토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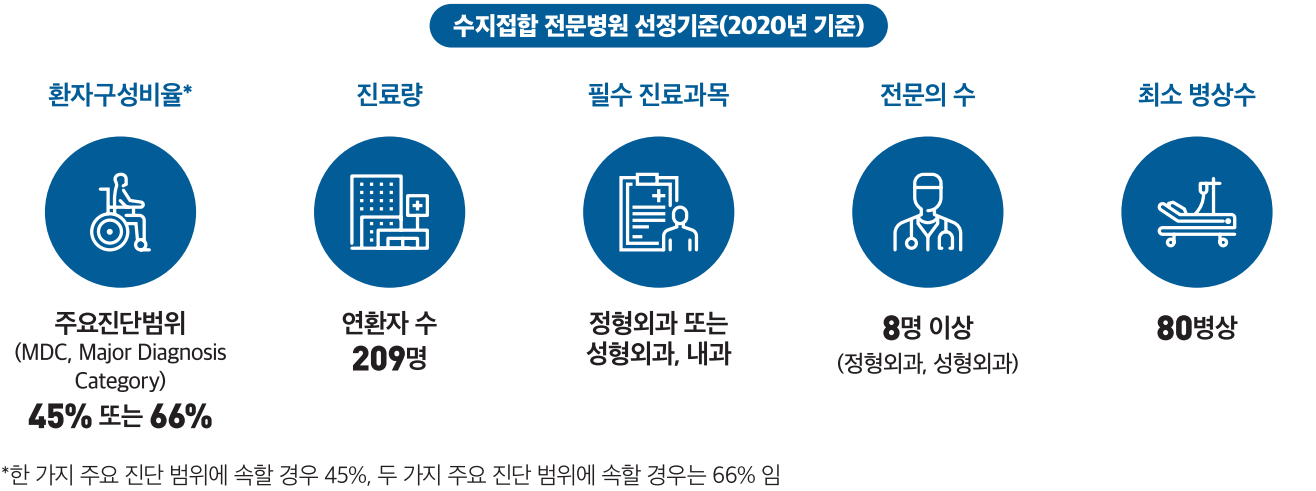
수지접합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병원

평소 생각지도 않은 질환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 간단한 찰과상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살점이 떨어지거나 뼈가 절단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때 당장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정보 구하기가 어렵다. 증상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시간을 지체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나 흉터가 남을까 하는 걱정에서 가까운 대형병원을 선택하기 쉽다.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

우상현 병원장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로 국내 수부외과 수술 권위자 중 한명이다. 영남대병원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했고, 미세수술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루이빌 클라이넨 수부외과센터*에서 한국인 임상교수로 근무했다. 우상현 병원장이 이끄는 수부미세재건센터 의료진은 2017년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고, SCI급 학술지에 여러 번 논문이 게재된 것은 물론 수차례 영문 수부교과서를 기술하기도 했다.

우상현 병원장이 2008년 개원한 W병원은 국내에서 손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수지접합 전문병원이다. 여기서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 미국 루이빌 클라이넨 센터는 1960년 설립된 전문 신체이식 의료기관으로 1999년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성공했으며, 2012년까지 59개국 1,200명 이상의 의료진이 이 센터의 펠로우십을 거쳤다.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2021년도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19개 분야(질환 12개, 진료과목 7개)로, 총 101개 기관이다. 전국의 요양기관이 10만 개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없다.

2021년 현재 국내 수지접합 분야로는 4개 병원만이 전문 병원으로 지정되었다. 한번 전문병원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그 자격을 영구히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문병원 지정기간은 3년간 유효하다. 이 기간 동안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와 의료 질 평가를 받는다.

대구의 W병원은 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처음 수지접합 분야 1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후 현재 4기 1차년도에 이르기까지 연속 지정되었다. 근 10년간 전문병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에 대해 우상현 병원장은 예상하지 못한 대담을 내놓았다. “W병원은 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될 당시 수지접합 분야 전문병원의 기준을 함께 고민하고 수립한 의료기관”이었다는 것이다.

우상현 병원장은 앞으로 W병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지접합 전문병원 기준을 오히려 넘어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전문의 보유 현황이나 수술실 가동률, 수술 성공률 등의 수치적인 면만 보더라도 우상현 병원장의 자신감을 신뢰할 수 있다. W병원은 총 11명의 미세수술 분야 전문의를 비롯해 마취과 의료진, 전문 간호사 등 24시간 수술실을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언제든지 야간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지접합 전문병원은 최소 의료인력이 당직을 설 수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절단사고가 발생해 응급환자가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규모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매일 돌아가며 당직을 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문의가 7명 이상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대학병원을 포함해 미세수술 전문의가 10명 이상 갖춰진 병원은 전국에 W병원뿐일 것입니다.”

W병원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환자 접근성이 결코 낮지 않다. 수시로 응급 헬기가 전국에서 환자를 이송한다. 팔이나 다리의 절단이 아닌 수부 절단은 골든타임이 비교적 길어, 길면 이틀까지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침착하게



“
환자가 수술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을 때
저 또한 더 큰 희망과
보람을 느끼죠
”

전문성을 고려해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우상현 병원장의 조언이다. “전국 어디에서 출발하시더라도 하루 이내면 우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팔이나 다리처럼 근육을 많이 포함하는 경우는 골든타임을 맞추기가 어렵지만, 손가락처럼 손목 아래의 부위에 상해를 입으셨다면 (절단 부위의) 보관 상태에 따라 하루나 이틀까지도 접합 수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는 환자들이 다급한 마음에 병원의 전문성을 잘 따져 보지 않고 1차 수술을 시도했다가 그 결과가 나쁜 상태로 저희 병원을 찾는 경우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절단 사고를 겪었을 때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준 없이 병원을 선택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인내와 희생 너머에는 최고라는 자신감

W병원의 전문성은 우상현 병원장의 자신감에서 비롯한다. 그는 이미 수련의 시절부터 수지접합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심장마비가 닥친 사람에게 골든타임은 5~10분이고, 뇌경색의 골든타임도 1~2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수지접합, 특히 미세부위의 접합 수술은 5~6시간이 지나더라도 신경과 조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인체기능도 회복할 수 있고요. 죽었던 신경과 조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오늘날에 이른 것 같습니다.” W병원의 수부미세재건센터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W병원 수술팀의 논문(Practical Tips to Improve Efficiency and Success in Upper Limb Replantation)이 미국성형외과학회의 최우수논문에 선정됐을뿐 아니라 미 논문 의학연구교육(CME) 부문에 게재돼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사실 이 분야의 의료인들에게는 많은 희생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진료에 대한 보상은 늘 아쉬움이 있으니까요.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목표로 하는 의료인이 있다면 저는 이 분야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먼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수술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 또 유관기관이 이 분야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며 제도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더 큰 희망과 보람을 느끼죠.”

희생과 인내의 너머에 존재하는 자신감이야말로 오늘 W병원이 더 힘차게 뛰는 이유다.



Mini Interview

한철 님(남, 56세)

불의의 사고로 절단된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으신지 불과 몇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수술도 잘됐고 회복도 빠르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지금은 입원 상태로 거머리를 이용해 피를 내는 회복치료 중입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회복에 대한 기대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사고 관련 본인 진료내역을
조회하고 싶다면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는

교통사고 환자 본인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진료 받은 의료기관명, 진료개시일, 입·내원일수, 보험사명, 진료형태,
총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경로

조회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제도 > 자동차보험심사제도 > 페이지 하단의 '자동차 보험 진료정보 조회' 클릭

더 좋은 의료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자경험 평가



2021년 5월~11월 동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국민 여러분께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더 좋은
의료문화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환자경험평가
홍보영상



의료인과 심사평가원이 만나 더 나은 내일을 이야기하다



'Dr. 결희킴 TV' 김결희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
기호균 실장



'Dr. 결희킴 TV' 김결희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호균 기획조정실장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본연의 사명감 외에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로 잘 알려진 강동성심병원 김결희 교수와 심사평가원의 사회적 가치 분야를 이끌고 있는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이 만나 오늘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내일의 많은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글: 이현아 사진: 조은선 영상: 김지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동영상에 재생됩니다.

커져가는 심사평가원의 사회공헌 역할

● **김결희 교수**: 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입니다. 저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로도 일하고 있는데요. 활동을 하다 보면 보람도 있지만 의사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변화가 참 작구나 하는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의료인은 개인을 치료하며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지만, 심사평가원은 더 넓은 영역에서 장기적이고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 **기호균 실장**: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 66명이 근무하고 있는 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은 경영전략과 조직, 예산, 성과, 법무관리 등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등의 CSR* 활동 또한 총괄하고 있습니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이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의식

● **김결희 교수:** 제 주변에는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해 여러 비영리단체 활동을 하는 의료인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선별진료소 등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죠. 코로나19로 인해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변화된 부분도 있었을까요?

✕ **기호균 실장:**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심사평가원은 모든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디지털네트워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자원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스크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구매난을 해소하고, DUR*ITS**를 통해 해외입국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한 점도 깜빡이 전파를 조기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를 신속히 등재하도록 하고, 관련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며, 진료비 조기 지급과 손실보상 업무까지 의료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20주년, 그리고 다시 원년

● **김결희 교수:** 심사평가원은 지난 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발간하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ESG* 경영 부분을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심사평가원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시더군요. 이제 20주년을 지나 21주년을 맞이하는데 관련한 새로운 계획도 있나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의미

✕ **기호균 실장:** 심사평가원은 현재 24개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노숙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스마트팜 운영을 지원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와 우도지역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이 제주 시내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탐씨 효도차 운행'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함께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임직원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희귀난치병 환우 치료비 지원사업이나 건강+행복캠프 등을 계속 확대하고,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소외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 **김결희 교수:** 제가 유방암 환우분들을 위한 '침표'라는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침표'는 암 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사회복귀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도 유방재건술 진료비의 급여화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기호균 실장:** 맞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2,500여 항목의 급여화 검토가 완료됐고, 같은 해 12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남은 비급여 항목 관리를 위해 4개 분야 12개 과제의 비급여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12개의 추진과제 중 9개의 과제 실행을 심사평가원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결희 교수:**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기여해

온 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이후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궁금해지는데요?

✕ **기호균 실장:**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은 코로나19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데 다양하게 기여했습니다. 확진자의 상태나 음압병상 정보의 관리, 치료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의약품유통정보 모니터링 등, 이 모든 것은 정밀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을 토대로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 일반사업장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향후 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코로나19 관련 의료수가 개발 등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김결희 교수:** 심사평가원이 사회공헌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을 수 있어 정말 뜻깊었습니다. 인터뷰 서두에, 제가 의료인 개인으로서 변화를 만드는 데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심사평가원에서 더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면 의료인들과 의료기관이 함께 더 많은 변화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호균 실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인 시간, 몰입이 곧 힐링 마크라메 공예 체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혈혈단신으로 타지에서 지내다보니
퇴근 후 뭘 해야 할지가 늘 고민이었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원주에
이런 클래스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더 알아보고 참여해 보려고 해요”

**고객홍보실 고객센터운영부
손윤경 대리**

“코로나19로 취미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렵잖아요.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더 알차게 보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크라메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잡생각이 안 생기고, 생각보다
결과물도 마음에 들어서
힐링이 되네요.”

**기획조정실 법규송무부
이세종 과장**

※ 본 체험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소상공인 자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본 취재의 촬영은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서양식 매듭 공예 마크라메는 실용성과 동시에 심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생전 처음 도전하는 이에게도 생각보다 쉬운 난이도 덕분에 완성도 있는 작품을 선사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점은, 혼자인 시간을 100% 집중하게 해 온전히 나를 만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글: 이현아 사진: 헬리오포토 스튜디오 영상: 박종복



미션,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갓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어느 날, 평소 친분이 있던 기획조정실 법규 송무부 이세종 과장과 고객홍보실 고객센터운영부 손윤경 대리가 지역 소상공인 주관 ‘마크라메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했다.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라는 주제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에서 지원자를 선발하여 운영하는데, 이번 체험활동은 워낙 지원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았다. 행운을 거머쥔 두 사람은 클래스 시작 전부터 공방에 도착해 내부를 둘러보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 만든 소품으로 저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램프에 씌울 수 있는 전등갓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손윤경 대리는 제작에 약 2시간이 소요되는 전등갓을 선택했다. 매듭을 잇다가 갓 모서리 부분에서 매듭 끝부분을 마구 빚어

술처럼 떨어지게 모양을 잡는 것이 포인트다. 같은 경상도 출신으로 평소 손윤경 대리와 시간을 자주 보낸다는 이세종 과장은 캠핑 소품 또는 실내 인테리어 용품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월행잉을 선택했다. 많은 초심자들이 선택하는 월행잉은 크기에 따라 화분이나 책, 소품 등을 넣을 수 있게 주머니 모양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초심자가 혼자서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공방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보고 월행잉을 골랐는데 만들 때는 조금 어렵더라도 나중에 쓰임이 많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캠핑을 가게되면 텐트에 걸어도 예쁘고, 평소에는 제 방에 걸어둬도 되니까요. 오늘은 대표님께 열심히 배워서 작품을 완성시켜 볼 생각이예요.” 굵기가 제각각 다른 실로 매듭을 지어 작품을 완성시키는



마크라메 공예는 최근 들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용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데다가 손을 많이 써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원주 시청로에 위치한 미드나잇선 공방은 마크라메 뿐 아니라 향초 등 소품 제작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인테리어 소품은 작고, 가볍고, 예뻐수록 좋잖아요. 마크라메로 만든 작품들은 그런 조건들에 충족해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만드시는 작품 외에도 전등의 선을 감아 모양을 내는 뽀띠조명로프나 주머니 등도 인테리어나 캠핑 소품으로 적합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진 요즘에 딱

경상도에서 근무자인 이 곳 원주로 오게 된 이세종 과장과 손윤경 대리는 평소 시간을 자주 함께 보낸다. 신경을 써서 발음하지 않으면 금세 튀어나오는 사투리 억양과, 유난히 밝고 쾌활한 웃음까지 닮은 그녀들에게 마크라메 공예를 주제로 한 원데이 클래스 경험은 특히 소중한다.

“코로나19로 취미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렵잖아요.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더 알차게 보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이 클래스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잡생각이 안 생기고, 생각보다 결과물도 마음에 들어서 힐링이 되네요.”

이세종 과장이 이날 처음 접해본 마크라메 클래스는 평소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자주 고민했던 그녀의 기대에 적절히 부응했다. 오롯이 본인에게 집중해 보내는 시간은



그녀의 내면을 차분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월행잉 역시 생각보다 훨씬 훌륭했다.

“오목한 주머니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대표님의 도움을 받으니 생각보다 그 과정이 어렵지 않았어요. 마크라메는 혼자 할 수 있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점도 좋습니다. 더 배워보고 싶어요.”

이세종 과장이 주머니 만들기에 집중하는 동안, 비교적 진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은 손윤경 대리도 빠른 속도로 전등갓의 레이어를 쌓아 갔다. 당초 2단으로 돼 있던 손윤경 대리의 매듭 층은, 한 겹이 더 쌓여 한층 더 풍부하고 단단한 디자인을 갖게 됐다. 전등갓 끝 부분을 집중해 빗질하던 손윤경 대리도 소감을 밝혔다.

“주변에 이런 클래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 좋아요. 혈혈단신으로 타지에서 지내다보니 퇴근 후 뭘 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원주에 이런 클래스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요. 더 알아보고 참여해 보려고 해요.”

미드나잇선 공방은 심사평가원과 불과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 동안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클래스에 참여한 일도 많았다고 한다.

“보통 20~30대 젊은 분들이 마크라메 클래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쉽지는 않지만 본인 노력에 따라 유튜브 등에서 배울 수 있을 정도까지 콘텐츠가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심신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깊이 몰두할 수 있거든요. 제 기억에 심사평가원의 젊은 직원들도 여럿 클래스에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심사평가원에) 평소 내적 친근함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취재도 진행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클래스를 진행한 미드나잇선 공방 남선아 대표의 소회도 남달랐다. 실제로 원주 지역에는 크고 작은 여러 공방들이 있다. 그 중에서 미드나잇선 공방과 같이 소상공인들이 합심해 살림을 꾸려 가는 공방들도 많다. 최근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미드나잇선 공방은 온라인 클래스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그 덕분에 최근에는 다시 클래스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심사평가원 직원들과 만나고 싶다는 것이 남선아 대표의 바람이다.

마크라메 소품 만들기

01. 재료를 준비한다.
02. 평매듭으로 패턴을 만든다.
03. 프린지로 작품의 걸면을 장식한다.
04. 매듭을 손질하거나, 빗질하는 방식으로 후장식을 한다.

미드나잇선 공방

미드나잇선 공방은 마크라메 클래스를 열고 제품도 판매하는 스튜디오다. 캔들이나 소품 공예도 함께 다루고 있다. 마크라메 체험은 체험자의 숙련도에 따라 다양한 클래스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클래스도 마련돼 있다.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554(관설동)

체험문의 010-5219-6788





심사평가원의 살림을 책임지는 안전경영실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살림을 책임지는 안전경영실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심사평가원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의정부지원 건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근무 만족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안전경영실을 만나 본다.

글. 이현아 사진. 헬리오포토 스튜디오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영시스템 수립

어떤 회사든 규모에 상관없이 경영시스템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수립하는 부서가 존재한다. 심사평가원 안전경영실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총무부, 안전관리부, 재무회계부, 계약부, 지원사육건립부 이렇게 5개 부로 구성된 안전경영실은 경영체계와 인프라를 관리하고,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부서이다 보니 업무의 영역이 넓다. 최근에는 대내외적인 안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이때 '안전'은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다. 심사평가원 내 안전한

직무환경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도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올 2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별 안전관리 수준과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평가원은 1동 로비에 설치된 'VR 가상현실 안전체험관'과 더불어, 전 직원 안전의식 상시 내재화를 위한 '사옥 안전 이용 안내서' 발간, 지역주민의 보행안전





안전관리부 김민우 주임



재무회계부 김아윤 주임



지원사육건설부 이종왕 주임



총무부 이재용 대리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께 추진한 ‘보행안전 컵홀더’ 배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부서별 위험성 평가’ 등으로 우수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활동을 위해 내부는 물론 안전 전문기관, 지자체, 민간업체 등과도 긴밀하게 협업했다는 것이 안전관리부 측의 설명이다. 결국 사육의 모든 공간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고 안전을 일상화하기 위해 펼쳤던 노력이 실효를 거둔 셈이다.

심사평가원은 지역사회 공헌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과 협업하여 취약 계층에게 편의점, 세탁소 운영 기회를 제공, 50개 이상의 노인·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강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매해 지역상생을 도모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펼치며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1,977m 둘레길을 조성하고 심사평가원의 어울림 정원이나 치악산 전망의 26층 스카이라운지를 개방한 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한 안전경영실의 활동은 심사평가원의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심사평가원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각종 공공조달 제도를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보증금을 면제하거나,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했으며, 대금 지급 기한을 최대 9일 단축했다. 외주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안전경영실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협력업체나 외주근로자에게 ‘갑’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자 ‘최저가 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하도급업체와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전선에서 발로 뛰는 젊은 부서

심사평가원의 모든 업무와 사업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안전경영실은 언제나 활기차고 시끌벅적하다. 회의실에는 전 부서에 배포되는 지급품이 가득 쌓여 있고, 외부 지원을 위해 무언가를 바쁘게 들고 나가는 직원들이 많다. 코로나19 이후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미묘한 동향 변화를 가장 섬세하게 파악하는 것도 안전경영실의 몫이다.

“직원들의 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외근을 다닐 일은 많지 않지만 여비 지급을 위해 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장지원 등 외부 업무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껴요.”

재무회계부 김아윤 주임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안전경영실의 역할에도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대내외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적극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경영실은 원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감염위험사 발생 시 전 직원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현재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는 선별진료소를 즉시 설치하고, 전용 귀가버스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또 다른 감염병의 발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상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총무부 김종봉 부장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았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함께 동참해 준 모든 임직원 덕분에 안전에 대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전경영실은 최근, 2023년 마무리 될 의정부지원 신사육 건립에 역점을 두고 업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은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보안이 취약한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안전경영실은 인근 부지 매입 후 지원사육건립부를 통해 사업 계획부터 사육 건립 전 과정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안전경영실 이영현 실장은 “지원 사육 중 자체 건립은 의정부지원이 최초인데, 기존 열악했던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고객의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에도 안전경영실이 언제나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직원들 간의 끈끈한 동료애가 버팀목이 되고 있다. 최근 의정부지원 실무를 맡아 의정부를 오가며 업무 중인 지원사육건립부 이종왕 주임은 “어려움 속에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결은 늘 쾌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우리 실 동료들 덕분”이라고 소개했다.



Mini Interview

안전경영실 이영현 실장

Q1. 평소 안전경영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실은 잠재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심사평가원의 비전을 달성하고,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조직구성원이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쾌적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영진과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경영실이 주관하는 프로그램들도 ‘소통’ 중심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Q2. 직원들에게 격려 또는 당부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안전경영실이 기관운영 살림을 맡고 있다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욱 본인이 먼저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고, 그것이 바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힘들 때 손 내밀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다 의미 있게 보내길 바랍니다. 저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944년 조지 쿠거 감독의 영화 ‘가스등(gas light)’에서 유래한다. 영화 속에서 남편 그레고리는 애초에 아내 폴라의 유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사람으로 저택 어딘가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려고 한다. 보석을 찾기 위해 다락방에 올라간 그레고리가 다락방의 불을 켜면 폴라의 방에 있는 가스등 불빛이 어두워지는데, 폴라가 이 사실을 말하자 그레고리는 그녀가 정신착란 상태에서 환각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간다. 제목의 ‘가스등’은 그레고리가 폴라에게 가하는 정신적 학대를 상징한다.



글. H+양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규희



이미 1960년대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의 현실적 감각을 조작하려는 노력’이라는 의미로 등재되었고, 이후에 여러 정신분석 논문에서도 이 개념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미국의 심리치료사인 로빈 스톤의 저서 『The

gaslight effect(2007)』로 인해서일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가해자와 가해자를 이상화해 그의 관점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병리적 현상을 ‘가스등 효과’라고 명명했다.

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할까?

이런 욕구가 왜 생기는지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적 이득이 있어서 타인을 조종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경우와 단지 심리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자는 소시오패스가 타인에게 세뇌의 과정을 거쳐서 금전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이득을 얻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소개한 영화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자기애성 인격의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도움 없이는 혼자 해결하기 힘들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가면서 결국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스스로의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는 실제적 이득이 딱히 있지 않는 한 본인도 눈치채지 못한다. 또한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니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자기애적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착취적으로 자기애적 욕구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특히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상사가 부하에게 조종하려는 의도로 행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균형한 권력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의 시도는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부부나 연인관계처럼 수평적인 관계라고 해도 서서히



Gaslighting

불균형한 권력상황이 구축된다면 ‘가스라이팅’이 시도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인정받고자 하는 구도가 되고, 가해자는 상대방을 미숙하다고 하며 비난하면서도 나 정도 되니까 너를 받아준다고 하면서 안심시켜가며 길들인다. 이 과정이 ‘가스라이팅’이다. 가해자는 주로 비난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고 마무리한다. 가해자로서는 진심으로 정말 못한 피해자를 자신이 받아주었다는 자기애적 욕구가 충족된다.(스스로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수많은 비난의 과정에서 자기의심을 해오다가 결국 가해자가 받아주었다는 만족감으로 의존욕구를 충족한다. ‘가스라이팅’이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스라이팅, 어떻게 대응할까?

그러면 가해자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스라이팅’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 피해자는 가해자를 대할 때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긴장되는 정서가 주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신의 의견은 언제나 거부 또는 수정되거나 비난받기 때문에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자주 비웃음을 당하게 되므로 위축되게 된다. 그러면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수차례 자가검열을 해서 표현하고, 아주 약간의 인정받음으로 안심을 하게 된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외부의 대인관계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특별히 피해자의 주변인물들에 대한 비난이나 평가절하 등을 심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 가해자의 의견에 상당부분 동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의 대인관계가 많이 줄어들었고, 많은 시간을 한사람과

보내게 되는데, 늘 눈치를 살피느라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스스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로빈 스톤의 저서를 읽고 나서야 스스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인 것을 인지한 독자들이 많았다고 하니 주변의 도움없이 혼자서 인지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임이 틀림없다. ‘가스라이팅’의 경우 신체적 학대나 금전적 갈취가 없다면 가해자가 특별히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정도까지 가야 처벌을 받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대상마저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스스로도 무기력하게 ‘가스라이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피해자는 상당한 자존감의 상실과 인격의 황폐화까지도 진행돼 스스로 다시 가해자를 찾아가거나 다른 관계에서 새로운 ‘가스라이팅’의 구조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치료 등을 통해서 스스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가스라이팅’ 구조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각자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어떤 의미에서는 ‘가스라이팅’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아주 심각하거나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가스라이팅’의 상황은 우리 주변 어느 곳에서나 조용히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내가 피해자인가를 고민해보기 전에 혹시 나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학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바르고 적절한 소리를 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가스라이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겠다.

인기 버라이어티 ‘강철부대’는 최정에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목표를 향해 서바이벌을 펼치는 내용을 다뤘다. 매주 화제를 모았던 이 프로그램의 인기 요인은 단연코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도전과 동료애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상과 그로 인한 좌절은 인간의 신체가 결코 강철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히 드러내기도 한다.

<강철부대>

제작 : 채널A, SKY

책임프로듀서 : 장시원



우리의 어깨는 강철이 아니다

회전근개파열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로 보는 어깨 통증

글. 이현아 감수. 강남 나누리병원 관절센터 이광열 병원장

사진. 채널A <강철부대>

예능프로그램에 나타난 어깨 통증

웹예능으로 시작된 <강철부대>는ミリ터리 서바이벌 예능이라는 포맷으로 비연예인인 전직 특수부대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각각의 개성이 뚜렷한 특수부대 출신 요원들의 한계를 알 수 없는 능력과, 이 같은 극한의 능력이 맞부딪히며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승부의 향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제한된 시점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과 대결의 서사는 많은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 동시에 궁극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5월 방영되었던 7회차에서는 군사경찰 특임대<SDT> 출신의 팀을 비롯해 총 3개 팀이 40kg 군장을 메고 산악 행군을 하는 ‘데스매치’ 미션이 펼쳐졌다.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야 하는 이 미션은 한계점에 이른 체력을

극복하며 동료 간 팀워크를 드러낼 수 있는 드라마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거 어깨 부상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나타난 SDT 이정민 팀원의 상황은 투지와 정신력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상이 악화돼 후유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인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는 회전을 만들어내는 어깨 운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소근육과 힘줄로 이루어지며, 어깨 관절의 움직임과 결합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 어깨를 사용할 때, 또는 어깨에 과도한 힘을 주어 사용할 때, 어깨 관절과 회전근개 힘줄 사이의 활막이 자극을 받아 염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회전근개파열에 의한 어깨 통증은 초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통증을 유발하는 만성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번 파열된 근육은 보다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고, 통증도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전근개파열은 평소보다 격렬한 운동이나 잘못된 관절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평소 나쁜 자세를 취하거나, 특정한 부위에 힘이 가해지도록 넘어졌을 때 갑자기 파열될 수도 있다. 이밖에 무거운 물건을 무리하게 들거나, 충분히 스트레칭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깨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도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전문가들은 운동선수, 신체(특히 팔)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직군 종사자 등에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도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격렬한

활동을 하게 되는 봄, 여름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초기대응이 중요

회전근개파열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통증의 정도를 간과해 치료를 미루거나, 보통의 오십견으로 생각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가 염증이 악화되면 만성적으로 근육이 퇴행하거나 쉽게 파열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회전근개파열은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천천히 손상 부위를 회복하는 비수술적 치료와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됐을 때 고려하는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의 경우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을 중단하고, 완만하게 활동 반경을 확장하며, 회복을 꾀하는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지만, 이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로 이행되는 경우도 있다. 회전근개 수술은 절개 부위가 작고, 손상도도 적어 입원기간과 수술 후 회복기간이 짧다.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회전근개파열을 예방하는 행동 수칙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다. 하지만 근육이나 관절이 손상되지 않는 행동 수칙이 필요하다.

01.

자세 점검

평소 나쁜 자세를 취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자. 나쁜 자세는 근본적으로 관절에 변형을 가져온다. 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한 부위에 무리가 가는 형태로 넘어지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02.

충분한 스트레칭

운동이나 과격한 활동 전에는 충분히 스트레칭하여 근육이 이완될 수 있도록 하자. 경직된 근육은 조금의 움직임이나 부하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03.

중요한 초기치료

어깨 통증을 방지하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팔을 들거나 손을 등 뒤로 했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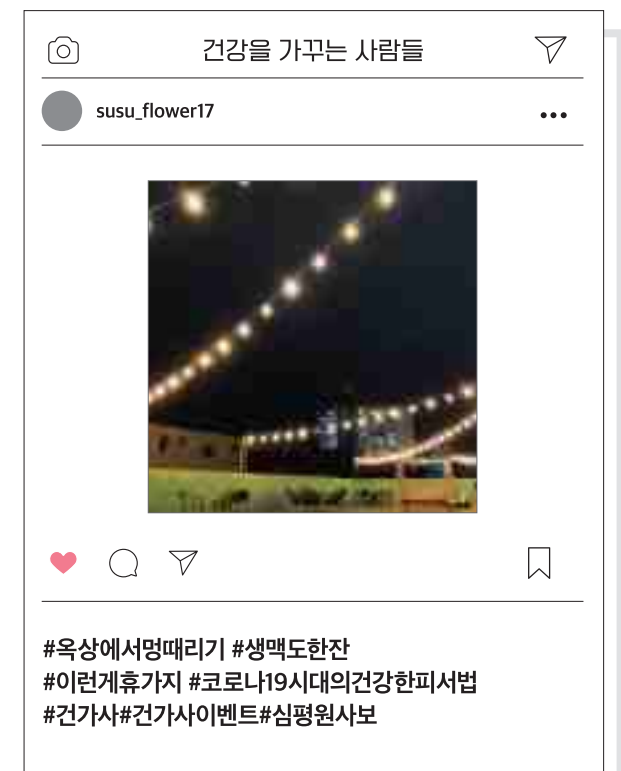
코로나19 시대에도 여름은 더우니까 ‘코로나19 시대의 건강한 피서법’은?

무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방법,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도 안전하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구독자들이 소개하는 ‘코로나19 시대의 건강한 피서법’, 지금 공개합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9+10월호 #나누는 건강의 주제는 ‘**건조한 계절, 나만의 피부관리법**’입니다.
환절기를 대비하는 나만의 피부관리법을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을 포함해 10분께 모바일 문화상품권(2만원)을 보내드립니다.**





HIR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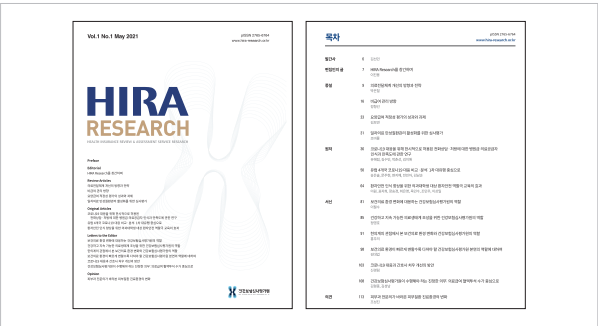
건보공단과 기관장 교차 특강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전략 공유를 위해 5월 10일과 5월 25일 양일간 기관장 교차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차 특강은 양 기관 출범 이후 최초 마련된 것으로,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선민 원장, 탈(脫)플라스틱 실천운동
'고고챌린지' 동참**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5월 14일 환경부 주관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고고챌린지' 동참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학술지 「HIRA Research」 창간호 발간

심사평가원은 5월 31일 학술지 「HIRA Research」 창간호(제1권 1호)를 발간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의료계, 학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투고한 논문 총 14편이 게재됐으며, 학술지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고 심사 시스템을 통해 상시 논문 투고가 가능하다. 심사평가원은 추후 KCI 등재 추진을 통해 전문학술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6월부터 고객센터 직영 운영 본격 시작

심사평가원은 13년간의 고객센터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고객센터를 직영 운영한다.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고객접점 일원화를 통한 신속·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개소·운영해왔으며,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3년간의 노력 끝에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다.



**KMAC 주관 2021년 '한국의 우수 콜센터'
11년 연속 선정**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1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11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고객 문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지식 DB화, 상담원 교육 강화 등에 꾸준히 힘써왔다.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대상
보건의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심사평가원은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중남미 국가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전략적 구매'를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중남미 국가 보건시스템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멕시코, 콜롬비아 등 총 11개국의 보건의료 전문가 39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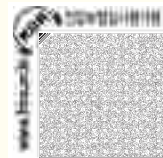
**한국실명예방재단 실명예방 사업 후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평가원은 6월 8일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임직원 성금 1,500만원과 약시 가림패치 740개(26,480매)를 후원했다. 후원 성금 전액은 개안 수술비로 지원되며, 가림패치는 약시판정을 받은 10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심사평가원은 6월 22일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주)카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디지털혁신을 통한 스마트 헬스기반 활성화, 인증서 및 전자문서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의료환경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건강가사>를 읽고



박태규 인천 연수구

<부모의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오은영 원장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부모교육이라 관심있게 잘 읽었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안전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처럼, 청소년기가 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해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가정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일들만 꿈꾸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순화 강원 동해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은 은퇴자의 주요 관심사가 됐네요. 저희 내외의 나이가 많아지니 치매가 걱정되던 차, 닥터톡톡과 건강인문학의 '치매' 기사를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별책으로 만들어 식탁 옆에 걸어놓고 수시로 읽을 생각입니다

조은선 부산 금정구

어머니께서 천식, 관절염, 위궤양까지 많이 아프십니다. 자연히 건강정보가 소중하고 열심히 어머니께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주 병원을 이용하다보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식지에 있는 정보들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정보 부탁드립니다.

건강을가꾸는사람들 182호 독자엽서 당첨자

박태규(인천 연수구)	이경연(서울 송파구)	김순득(부산 금정구)	윤혜진(경남 창원시)	권희운(경남 진주시)
박순화(강원 동해시)	황병호(경기 시흥시)	이유림(부산 사하구)	최기정(포항 남구)	김철규(서울 강남구)
조은선(부산 금정구)	강구권(대구 달서구)	신정희(서울 노원구)	차애린(전남 나주시)	김은미(경북 경산시)
유재범(서울 성북구)	이미연(서울 중랑구)	박영희(서울 동작구)	박현희(부산 연제구)	송재경(인천 남동구)

구독신청 / 구독취소 / 주소변경

01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https://hirasabo.or.kr> 접속

02

하단의 구독신청 클릭

03

조회된 서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기 클릭하여 완료

*구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필수 사유)

*발송물이 반송되는 경우 해당 구독신청 건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요양기관 간행물 수취 선택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8조(업무)와 관련 요양급여에 대한 심사 및 평가, 정책지원 업무 등을 요양기관에 홍보·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본 간행물 수취를 희망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www.hira.or.kr) > '구독신청' 클릭하여 구독 취소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식지

VOL.183

2021. July | August

- 2020년 진료비통계지표 공개
-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서비스 안내
- 요양기관 주요 청구착오 사례 안내(9항목)

BOOK IN BOOK

의약계 안내

01 2020년 진료비통계지표 공개



문의: 급여정보분석실 급여정보운영부 최대환 팀장(033-739-2107)

공개배경 및 목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건강보험 진료비 등 통계정보를 생산·공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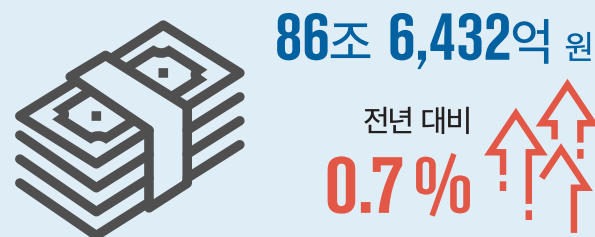
지표개요

- 매년 분기별(1분기, 상반기, 3분기, 연간) 진료비 관련 통계를 산출하여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
※ 상반기, 연간 통계는 책자로 발간·배포('2020년 진료비통계지표'는 7월 중 배포 예정)
- 진료일 기준*과 심사일 기준으로 이원화하여 통계 산출
* 진료비 청구 및 심사완료 시점에 따라 진료일 기준의 통계는 상이할 수 있음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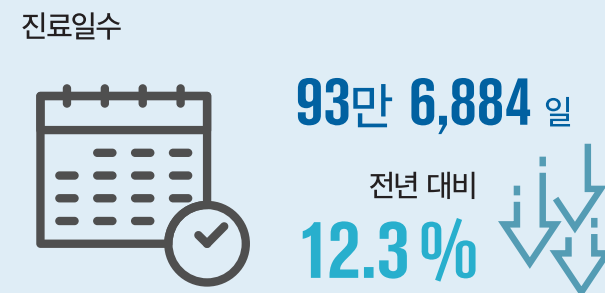
■ 건강보험 주요지표

- 건강보험 진료비



■ 요양기관 종별 주요지표

- 의료기관 진료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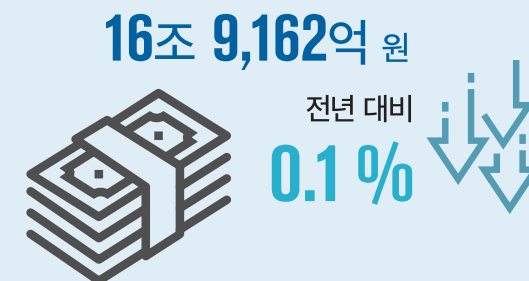
-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 전년 대비: 상급종합병원 2.6%, 한방병원 13.6%* ↑, 보건기관 15.9%, 한의원 6.7% ↓
* 한방병원 청구기관 수 '19년 380개소 → '20년 439개소(15.5% 증가)

■ 의원 표시과목별 현황

- 의원 진료비



산부인과

22.5% ↑↑



정신건강의학과

17.6% ↑↑



소아청소년과

4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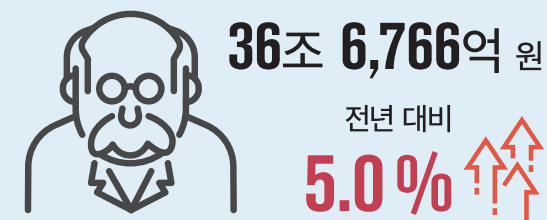


이비인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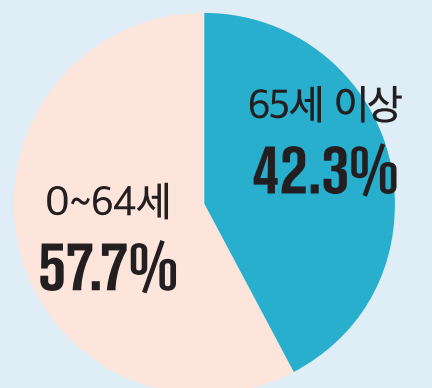
34.7% ↓↓↓

■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현황

- 노인 진료비



- 진료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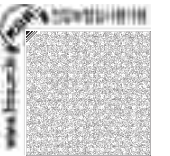


- 다빈도 질병 1위: (입원) 노년백내장, (외래)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진료비 1위: (입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외래)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질병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2020년) 기준

02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서비스 안내

문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개발부 정준구 대리(033-739-5423)



진료비통계지표 확인방법

- ①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 접속
 - * 포털사이트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검색
 -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정보공개" > "의료통계" > "의료통계정보" 클릭

- ② "의료통계정보" > "의료 통계 자료실" > "통계간행물" 클릭



- ③ 2020년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 심사일 기준)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2020년 진료비통계지표(파일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서비스란

-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서비스란 의료기관이 청구한 교통사고환자 자격정보를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정보와 비교하여 오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AXA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전국렌터카공제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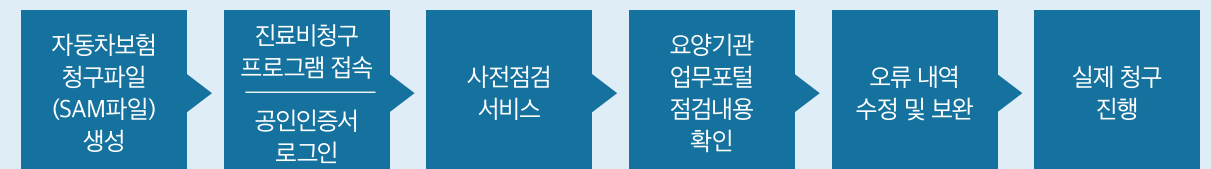
-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은 그간 「청구 후 수정·보완서비스」로 제공해 왔으며, '21년 6월 「청구 전 사전점검서비스」와 「청구 후 수정·보완서비스」로 확대하였습니다.

- 본 서비스는 교통사고환자 자격 관련 청구오류를 예방함으로써 보완청구 등 행정적 부담을 덜고 적기에 진료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이용 방법

■ 청구 전 사전점검 서비스

- 의료기관이 청구하기 전 교통사고환자 자격 유효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본 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진료비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① 의료기관이 청구SW를 이용하여 청구파일을 생성합니다.
- ② 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진료비청구 프로그램」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③ 「진료비청구 프로그램」내 「사전점검서비스」를 클릭, 생성된 청구파일을 전송합니다.
- ④ 점검결과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자동차보험" > "진료비청구" > "청구오류" > [청구오류 사전점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점검결과 확인 후, 의료기관 PC에 탑재된 청구SW에서 수정·보완합니다.
- ⑥ 청구SW를 이용하여 청구파일을 재생성하고 실제 청구를 진행합니다.



■ 청구 후 수정·보완 서비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시 교통사고환자 자격 관련 오류사항을 통보하여, 2일 이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신청 의료기관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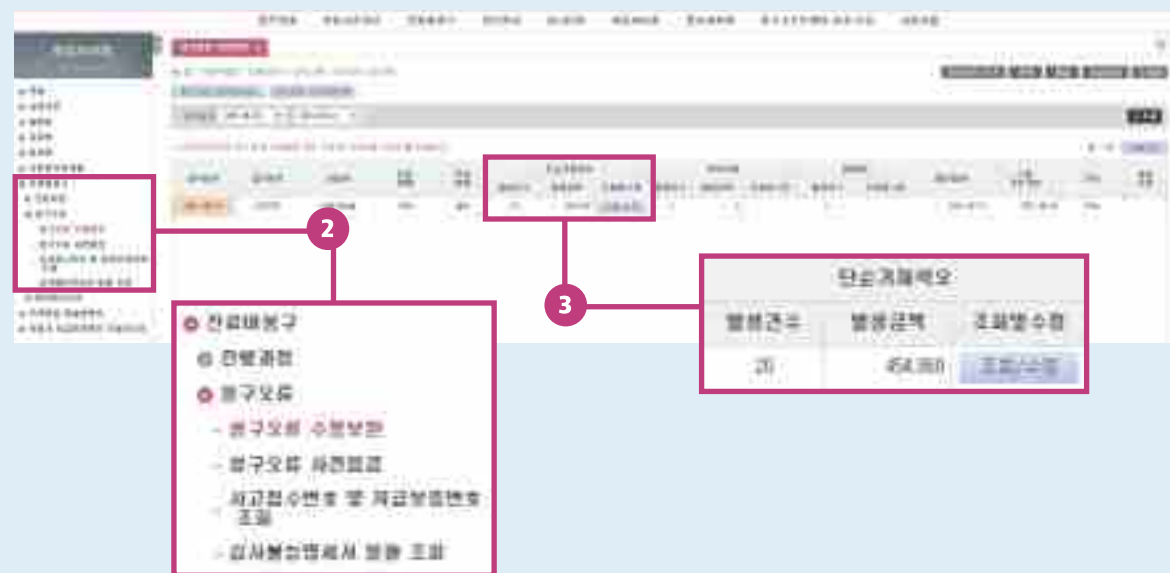
• 청구 후 수정·보완 서비스 신청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자동차보험” > “신청및자료 제출” > “통보서 신청” > [통보서 이메일 신청]화면에서 “A.F.K안내메일통보(자동차보험), A.F.K조정내역통보(자동차보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청구 후 수정·보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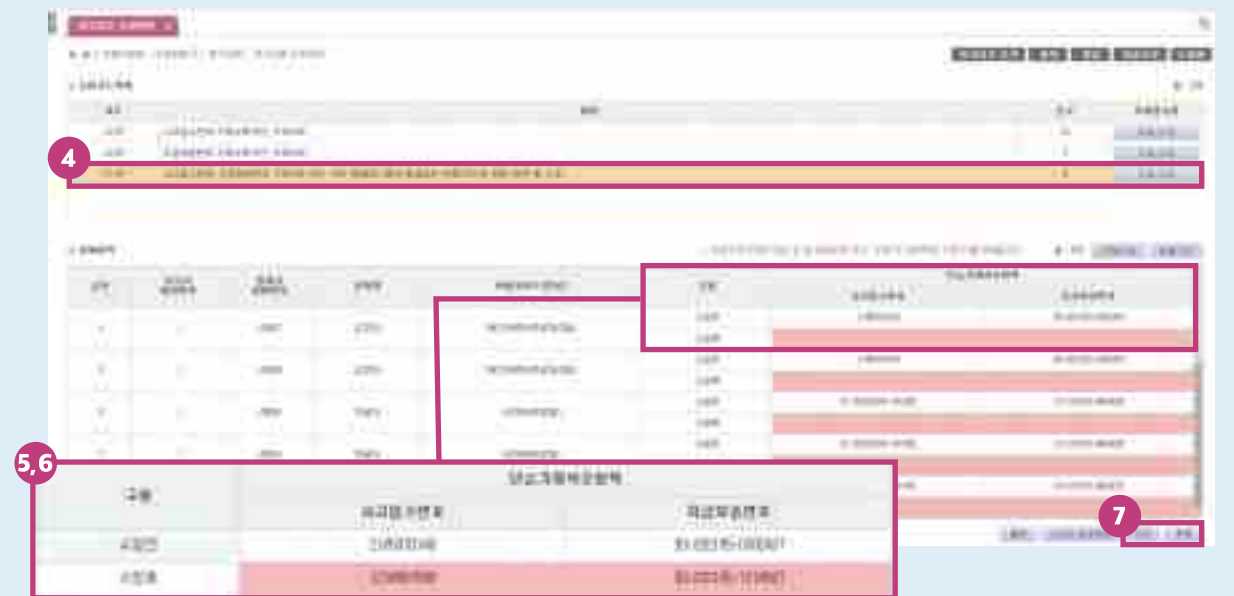


①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접속, “자동차보험” 선택



② “진료비청구” > “청구오류” > “청구오류 수정보완” 선택

③ [단순기재착오] 칼럼 아래 **조회/수정** 클릭



④ [오류코드목록]에서 코드 T1-01의 **조회/수정** 클릭

⑤ [상세내역]에서 청구 시 작성한 정보 확인(수정 전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

⑥ [수정 후]의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 란에 수정 기재

⑦ 오른쪽 하단의 **저장** 클릭하여 수정내용 저장하며, **목록** 클릭하여 이전 조회화면으로 돌아감



⑧ 조회화면에서 수정·보완 완료된 접수번호의 “전송” 클릭 시 수정내역 최종 반영

※ 전송 클릭 후 추가 수정·보완 불가하오니, 반드시 수정·보완내역 확인 후 전송하기 바랍니다.

03 요양기관 주요 청구착오 사례 안내(9항목)

목적

- 요양기관이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유형 및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정확한 청구를 유도하고 정산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3항 및 제4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4항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제4조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제3항
- 「심사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청구착오 사례

① 외용제 청구착오 점검

- 대상: 크림 등 외용제 청구착오 건
- 사례

품명	약국		사후 점검결과
	청구횟수*	실제 지급횟수*	
(229) 온브리즈흡입용 캡슐 150mcg (1팩 30캡슐포장)	1X1X60	1X1X2	실제 지급 확인 후 차액 정산

* 1회 투약량 X 일 투여횟수 X 총 투여횟수

②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 대상: 비응급의 사유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 기각 건의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 사례

질병코드(명)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심사결과	진료내역	사후 점검결과
K590(변비)	응급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	(V1100) 응급의료관리료-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정 (응급의료관리료- 중앙응급의료센터)

③ 의과청구착오 재점검

- 대상: 청구착오 다발생 유형
- 사례

진료내역	단가(원)	1회(투약)	일투여량	총투여량	사후 점검결과
(323) 50% 포도당 100ml	1,327	70	1	1	조정 (실사용량 확인 후 차액)

④ 항목별 재점검

- 대상: 급여기준적용 착오 다발생 건
- 사례

질병코드(명)	진료내역	사후 점검결과
D179(상세불명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 (AA257) 재진진찰료-상급종합병원 • (AF500) 낮병동 입원료 • (N0233) 연부조직종양적출술-피하양성종양	조정 (재진진찰료)

⑤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중복청구

-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기간 중 협의진료 시 중복 청구한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및 의약품관리료
- 사례

진료과	요양 개시일자	요양 종료일자	질병 코드(명)	진료내역	사후 점검결과
정신 건강 의학과 (입원)	2019. 3.1.	2019. 3.13.	F200 (편집조현병)	• (AR341)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90일 G1등급(1일당)(병원이상)	-
내과 (협의 진료)	2019. 3.3.	2019. 3.3.	J040 (급성후두염)	• (AH500) 협의진찰료-상급종합병원 • (J2000)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1일당 • (AL557)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7일분	조정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⑥ 입원진료비용 중복청구

- 대상: 동일 요양기관, 동일 수진자의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건
- 사례

접수일자	질병코드(명)	요양개시일자	요양종료일자	내원일수	사후 점검결과
2019.4.21.	I209(상세불명의 협심증)	2019.4.9.	2019.4.15.	7	-
2019.5.20.	I209(상세불명의 협심증)	2019.4.9.	2019.4.15.	7	조정 (4.9.~4.15.(7일간) 입원진료비 중복)

⑦ 복수면허인 진료건 진찰료 중복청구

- 대상: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 또는 근무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환자의 진찰료 중복청구 건
- 사례

요양기관명	요양개시일자	질병코드(명)	진료내역	사후 점검결과
A의원	2018.10.11	M5457 (요통, 요천부)	• (AA154) 초진진찰료 • 이학요법료	진찰료 1회만 인정
B한의원	2018.10.11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10100) 초진진찰료 • 침술, 부항술	

⑧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 대상: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으로 의과·한의과 중복청구 건
- 사례

요양기관명	요양개시일자	질병코드(명)	진료내역	비고	사후 점검결과
A한의원	2021.10.11	M5457 (요통, 요천부)	• (10200) 재진진찰료 • 침술 • 부항술	선행진료	인정
B의원	2021.10.11	M5457 (요통, 요천부)	• (AA254) 재진진찰료 • 이학요법료	후행진료	조정 (전액본인부담)

⑨ 처방·조제 상이 내역

- 대상: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 상이 건
- 사례

구분	분류명 및 품명	단가 (원)	회 (투약)	일 투여량	총 투여량	청구금액 (원)	사후 점검결과
처방 내역	(114) 모빅캡슐7.5	267	1	1	15	4,005	-
	(119) 리리카캡슐 (100/100본인부담)						
조제 내역	(114) 모빅캡슐7.5	267	1	1	15	4,005	조정 (리리카캡슐 100/100본인부담)
	(119) 리리카캡슐	527	1	1	15	7,905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접속 경로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심사 사후관리



안전한 면회를 위한

요양병원 준비운동

지킬수록 가까워집니다. 사랑한다면 꼭 지켜주세요!

- 하나!** 별도의 면회공간 설치 ✓
- 둘!** 면회객 명부관리 ✓
- 셋!** 예방접종 완료 직원 배치 ✓
- 넷!** 면회공간 방역과 환기 ✓



아나운서 이지애

가까운 요양병원 위치와 평가정보는 심평원에서 확인하세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약국 찾기



‘실종 아동 및 장애인을 찾습니다’



이름 류선옥(당시 만 45세 5개월, 여)
발생일자 2018. 04. 09 (월)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
신체특징 키 158cm, 체중 64kg, 지적장애 3급, 단발머리, 통통한 체격
착의사항 검은색 후드티, 베이지색 목티, 보라색 몸빼바지, 무테 안경 착용



이름 강승영(당시 만 36세 2개월, 남)
발생일자 2014. 06. 28 (토)
발생장소 전북 군산시 조촌동
신체특징 키 165cm, 체중 55kg, 보통 체격, 검정색 짧은 머리
착의사항 녹색 민무늬 반팔 티셔츠, 검은색 면 반바지



이름 김일형(당시 만 8세 10개월, 남)
발생일자 2010. 09. 04 (토)
발생장소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신체특징 키 125cm, 체중 20kg, 자폐성장애, 왜소한 체격, 가름한 얼굴형, 검정색 스포츠형머리
착의사항 흰색 메리야스(가슴에 별그림), 청색 반바지, 청색 장화



이름 박승(당시 만 16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8. 05. 24 (토)
발생장소 경남 창원시 팔용동
신체특징 키 170cm, 체중 50kg, 왼쪽 귀 밑에 점, 야원 체격, 검정색 짧은 머리
착의사항 흰색 티셔츠, 청바지, 회색 운동화

